금수강산

10

주체105(2016)
루계 제326호 월간

 ISSN 1727-9062

우리는 만리마기수

2. 행복에로 가는 지름길을 열며
혁신으로 증산으로 기적떨친다
과학기술나래 활짝 펴고 날아
리상향에 어서 가닿자
(후렴)

3. 폭풍치며 전진 번개치며 전진
이 진군에 사회주의승리가 있다
백년세월 당겨 미래향해 달려
온 세계를 앞서가리라
(후렴)

차 례

200일전투의 불길 거세찬 우리 조국

좌담회

창조와 혁신의 불길은 이렇게 타올랐다 · · · · · 3

일 화

대중의 마음속에서 예비를 찾으시여 · · · · · · · 6

더 높이 추켜든 자강력제일주의기치 · · · · · · · 8

드높은 열의, 생산적앙양 · · · · · · · · · · · 10

주체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 · · · · · · · · · 14

미래를 위해 달리는 학습장생산자들 · · · · · · 16

일터마다 들끓도록 · · · · · · · · · · · · · · 1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첫 당조직-건설동지사 · 20

조선로동당의 뿌리가 마련되기까지 · · · · · · · · · · · · · · · 22

수 기

맹수사와 함께 50여년 · 23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를 이룩하시여 · · · · · · · · · · · · · · 24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사상 · · · · · · · 25

방문기

《세상에 부럼없어라》 노래소리 울리는 곳에서 · · 26

너도나도 배우는 곳 (3) · · · · · · · · · · 30

수 기

삶의 보금자리 · · · · · · · · · · 32

대권도모국의 주인공들로 · · · · · · · · · · · · · · · · · · · 34

고향소식

군자루에서 보는 금야의 모습 · · · · · · · · · · · · · · · · · 36

조국의 품에 안겨

시간과 애국 · 38

편 지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 40

인상기

줄기차게 이어지는 애국애족의 길 · · · · · · · · · · · · · · · 41

미래에로 질주해가는 나라 · · · · · · · · · · · · · · · · · · · 41

고국방문

놀라움속에, 기쁨속에 · · · · · · · · · · · · · · · 42

조선민족된 긍지와 자부심 · · · · · · · · · · · 44

헌신적봉사의 70년 · · · · · · · · · · · · · · · · 45

칠골교회당의 피아노소리 · · · · · · · · · · · · · 46

력사인물

17세기 실학자 류형원 · 47

민족의 향기

고려청자의 매력 · 48

사 화

뛰여난 계책으로 · 48

단군릉이 전하는 이야기 · 50

남조선당국과 인민들에게 · · · · · · · · · · · · · · · · · · · 51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 · · · · · · 52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는 얻을것이 없다 · · · 52

돈이 인권인 사회 · · · · · · · · · · · · · · · · · 54

재침은 곧 망국과 파멸의 길 · · · · · · · · · · · 55

조선속담 (나라와 인민, 향토의 귀중함) · · · · · · · · · · · · · · 19

상 식

우리 나라에서 몇가지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한 년대 · · · · · · · · · 32

알루미니움과 건강 · 39

부수도와 소경 · 56

유모아

동반자 · 55

충정의 200일전투에서 날에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가고있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5(2016)년 6월

200일전투의 불길 거세찬 우리 조국

좌담회

창조와 혁신의 불길은 이렇게 타올랐다

참가자

한성우: 기계공업성 국장
문학철: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기사장
최경순: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조사공
연 옥: 본사기자

기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온 나라에 타번지고있는 충정의 200일전투의 불길속에 그 어디서나 창조되고있는 만리마속도의 열풍을 대할수록 지난 년대기들마다에 자랑스럽게 기록된 여러 전투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자고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문학철: 사람들은 흔히 전투라고 하면 적아간

의 치렬한 공방전과 총포탄이 비발치는 격렬한 상황을 떠올리군 합니다.

올해 상반년도에 진행된 70일전투에 이어 현재의 200일전투에서도 그러하지만 지난 년대기들에도 우리 인민은 총포성이 울리는 전장에서 치렬한 싸움을 하는 심정으로 정해진 전투기간들마다 제시된 경제과업목표들을 최고의 높이에서 훌륭히 수행하기 위해 비상히 앙양된 열의를 안고 영웅적위훈을 수없이 창조하여왔습니다.

주체63(1974)년말에 진행된 70일전투,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세차례 진행된 100일전투, 주체77(1988)년과 주체78(1989)년사이에 있은 두차례의 200일전투 그리고 주체98(2009)년의 150일전투와 100일전투, 올해 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진행된 충정의 70일전투와 지금 벌리고 있는 200일전투…

지난 기간 우리 나라 력사에 뜻깊게 아로새겨진 전투들만 보아도 조선혁명이 어떻게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발전하여왔는가를 잘 알수 있게 합니다.

한성우: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70일전투가 있은 주체63(1974)년은 사회주의대건설이 시작된 력사적인 해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령도밑에 당시의 김책제철소확장공사, 북창화력발전소 제2계단공사, 순천세멘트공장건설, 청년화학공장건설 등 방대한 기본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였으며 탄광, 광산들이 새로 개발되거나 개건확장되였고 채굴설비와 운반설비들의 대형화, 현대화, 고속화가 실현되였습니다. 그리고 공업부문에서 생산공정의 자동화, 원격조종화가 실현되여 현대적기술의 토대우에 올라섰으며 운수부문에서는 철도와 자동차, 배에 의한 련대수송을 강화하고 삭도, 벨트콘베아, 관수송의 3화수송을 널리 받아들이였습니다.

70일전투기간에 6개년인민경제계획을 2년이상 앞당겨 수행한 공장, 기업소들은 1 000여개 단위나 됩니다.

기자: 그뿐이 아닙니다.

주체77(1988)년 2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화국창건 40돐을 맞으며 몸소 200일전투를 발기하시고 그 전투목표와 수행방도를 제시하시였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를 보내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전투기간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나날을 보내시면서 중요대상건설과 전력, 강재, 석탄과 세멘트생산, 수송부문의 200일전투일보를 매일 받아보시고 제기된 문제들을 풀어주시였으며 여러 중요대상건설장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건설자들의 투쟁을 고무해주시였습니다. 200일전투에서 앙양된 기세를 늦추지 말고 대중적혁신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갈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따라 전체 인민은 다시한번 새로운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려 만경대학생소년궁전, 광복거리, 5월1일경기장을 비롯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500여개의 대상건설을 완공하고 모든 부문에서 제시된 전투과제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최경순: 지금 저의 나이가 80살을 가까이하고있다면 사람들은 놀랄것입니다. 그러나 후대들에게 우리 전세대들이 지녔던 투쟁정신과 사업기풍을 알려주고싶어 오늘도 저는 현장에 서있습니다. 40여년전의 70일전투와 더불어 자랑찬 위훈으로 수놓아온 100일, 200일, 150일전투들을 추억하면 정말 감회도 새롭습니다.

주체77(1988)년 9월 200일전투가 결속되자마자 전국영웅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여 온 나라에는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는 기풍이 꽉 차넘치였습니다. 200일전투가 2 000일전투, 2만일전투로 이어지게 할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구상이 현실로 펼쳐져 다시한번 새로운 200일전투가 벌어지던 나날[주체78(1989)년 3월]에 저는 공훈조사공의 영예를 지니였습니다.

문학철: 우리 혁명의 전세대들이 지난 전투들에서 발휘한 그 투쟁정신과 일본새는 년대와 년대를 이어 올해 70일전투, 200일전투들에서도 남김없이 발휘되고있습니다.

70일전투기간 우리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전력생산자들은 주야전투를 힘있게 벌려 발전기들의 효률을 최대한 높이였으며 200일전투에서도 집단적혁신의 불길,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전력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습니다.

지금 여러 열생산직장들에서는 호기당 증기부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대책들을 빠짐없이 세우고있으며 보수, 보온직장들에서는 전동기들에 대한 보수를 질적으로 하고 자체로 생산한 내화벽돌을 적극 리용하고 있습니다.

한성우: 저도 하고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다 아시다싶이 지난 5월 중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머니당대회에 드리는 충정의 로력적선물로 제작한 현대적인 뜨락또르와 농기계들, 새형의 자동차, 뻐스 등 기계설비들이 전시되여있는 전시장을 돌아보시

《장자산청년》호 진수식 100일전투: 주체69(1980)년 촬영

완공된 5월1일경기장 새로운 200일전투: 주체78(1989)년 촬영

주체철에 의한 선진적인 제강법을 완성한 성강의 로동계급들 150일전투: 주체98(2009)년 촬영

였습니다.

우리 기계공업성에서는 새형의 80hp뜨락또르와 115hp디젤기관을 리용한 5t급화물자동차 등을 제작하였습니다. 70일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우리는 설계부터 모방설계가 아니라 창안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동력전달계통과 조향계통의 변속기부분도 세계적수준을 돌파하였고 국산화비중을 99. 5%로 보장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이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만든 기계제품들은 하나와 같이 세계적수준이라고 하시면서 특히 마음에 드는것은 여러가지 기계제품들을 다른 나라의 견본을 그대로 모방하여 만든것이 아니라 우리 식으로 제작한것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80hp뜨락또르에 오르시여 기쁨의 미소를 지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을 우러르느라니 70일전투를 발기하시고 그 전투승리에로 조국과 인민을 이끌어주신 그이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이 어려와 저의 가슴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사실 이번 70일전투기간에 이렇듯 기적과 같은 성과를 거둘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전에 품들여 마련해주신 물질기술적토대가 든든하였기때문입니다. 그 나날 저희들은 자력자강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는것과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야말로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라는것을 뼈속깊이 체득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70일전투에 이어 200일전투로 들끓는 조국땅 방방곡곡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진두에서 령도하고 계십니다.

기자: 옳은 말입니다.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인민으로 키워주시고 비약의 룡마에 태워 사회주의강국건설에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창조와 혁신의 불길은 그렇듯 거세차게 타오르고있는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올해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충정의 200일전투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랍니다.

* * *

일 화

대중의 마음속에서 예비를 찾으시여

기적창조의 열쇠는 인민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3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의 마지막해가 저물어가고있던 주체45(1956)년 12월 중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런데 그때 형편에서 사회주의건설에서 대고조를 일으킨다는것은 누구나 감히 생각할수 없는 일이였다.

다음해인 주체46(1957)년부터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위한 5개년계획수행에 들어가야 하는데 나라에는 자재도 자금도 엄청나게 모자랐으며 로력도 부족하였다. 인민들의 생활형편도 아직은 어려웠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그러하신것처럼 이때에도 로동계급과 인민이 떨쳐나서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굳게 믿으시고 12월 28일 강선제강소(당시)를 찾으시였다.

제강소지도일군들이 강재 1만t을 더 생산할수 있는 방도를 찾아내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료해하신 그이께서는 그들이 로동계급속에 들어가지 않고 탁상에서만 맴도는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우리는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때일수록 우리는 대중을 믿고 그들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그러면 못해낼 일이 없고 점령 못할 요새가 없습니다.》라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나서 그이께서는 오후에 창고자리에 로동자들을 다 모이게 하시고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국내외정세와 나라형편을 알려주시면서 나는 당신들밖에 의거할데가 없다, 강재생산은 동무들에게 전적으로 맡긴다고 뜨겁게 호소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를 받들고 강선로동계급은 산악같이 떨쳐나 혁신적앙양을 일으켜 6만t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t의 강편을 생산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참으로 인민의 힘은 기적창조의 근본원천이였다.

대중속에 들어가라

주체63(1974)년 인민경제계획을 작성하던 때의 일이다.

조선로동당창건 30돐[주체64(1975). 10. 10.]전으로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앞당겨 점령하고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자면 계획초안에 예견된대로 모든 부문에서 전투목표를 반드시 점령하여야만 하였다.

그 전투목표를 돌파하기 위한 문제를 놓고 일군들은 토의를 거듭하였으나 신통한 방도를 찾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작성된 계획초안을 함께 토론해보자고 하시면서 해당 일군들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청사로 부르시였다.

한 일군으로부터 계획초안작성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문제해결의 고리는 군중을 믿고 그들의 힘을 발동시키는데 있다, 계획이 방대하고 어려울수록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야 한다고 일군들을 깨우쳐주시였다.

그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3(1974)년의 방대한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70일전투를 발기하시고 그 전투를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전투승리의 기본열쇠를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는데서 찾으신 그이께서는 그 성과적보장을 위하여 중앙과 도의 책임일군들로 지도소조를 조직하게 하시고 그들이 대중속에 들어가 대중의 창조적열의와 적극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자신께서 재령광산, 태탄광산, 해주항, 신천군 화산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을 찾으시고 현지에서 70일전투를 몸소 지휘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령도예술에 의하여 그해 인민경제계획은 빛나게 완수되였으며 새로운 천리마속도, 70일전투속도가 창조되고 속도전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측정단위로 잴수 없는 높이

주체104(2015)년 4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수도 평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당시)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동안 어려운 속에서 많은 일을 하였다고 일군들을 고무해주시고나서 발전소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에서 모두 풀어주겠으니 청년돌격대원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정치사업과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며 공사를 립체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한 조직지휘를 짜고들어 단계별, 대상별목표를 일정계획대로 점령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주체104(2015)년 9월 완공을 앞둔 백두산선군청년1호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우리 청년들은 모두가 영웅들이라고 하시면서 발전소의 이름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로 명명해주시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높이 솟아오른 1호발전소 언제를 여러곳에서 보아주시면서 그이께서는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이 쌓아올린 언제이기에 그 높이를 결코 측정단위로 잴수 없다고, 백두산영웅청년1호발전소 언제의 높이는 우리 청년들의 애국심의 높이, 청년강국의 높이이라고 힘있게 말씀하시였다.

주체105(2016)년 4월 완공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1년동안에 백두산영웅청년1호, 2호, 3호발전소를 일떠세움으로써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조선청년들의 불굴의 정신력과 무궁무진한 힘을 만천하에 다시금 과시하였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에게 조선로동당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안설룡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시험발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된 소식은 200일전투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을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더 높이 추켜든 자강력제일주의기치

지금 조국에서 올해를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한 충정의 200일전투를 드세차게 벌려 세인을 놀래우고있다.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자강력제일주의가 낳은 성과는 참으로 크다.

대오의 앞장에 선 국방과학부문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전면적이고 현실적인 공격무기인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화성-10》시험발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소위 《고강도제재》를 실시하면 올해중에 공화국이 굴복할것이라고 떠벌이던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을 악몽속에 몰아넣었다.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 역시 위력한 탄도로케트발사훈련 등으로 적대세력들의 기를 꺾어놓아 200일전투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을 고무하고 공화국의 불패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그것은 그대로 만리마속도창조로 들끓는 려명거리건설장에 나래쳐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오늘과 래일이 다른 기적이 련이어 창조되게 하였다. 공사를 시작한지 몇달만에 70층살림집을 비롯한 수십동에 달하는 살림집골조공사가 끝나고 지금은 완공의 날을 맞이하고있는 기적은 조선에서만 창조할수 있는 기적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조국인민들 누구나 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가 보자, 아무리 적대세력들이 류례없는 제재소동을 벌린다 해도 우리는 자기 힘으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라는 든든한 배짱으로 경제강국건설에 총력을 다하고있다.

인민경제선행부문이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이 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오늘의 총진군에서 기관차의 역할을 하고있는 과학자, 기술자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수많이 풀어나가고있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와 순천화력발전소, 청천강화력발전소에서는 발전설비의 효률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석탄과 중유소비를 낮추면서도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있다. 덕천지구 탄광련합기업소에서는 현대적인 권양기를 새롭게 제작하였고 개천지구 탄광련합기업소에서는 자기들의 작업환경에 맞는 이동식공기압축기를 개발하고 계렬생산에 들어갔는가 하면 전기, 자재, 로력절약형의 발파용자재생산공정을 확립하여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였다. 자립적야금공업의 중추를 이루고있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등의 뒤를 이어 주체철생산방법을 확립하여 강재를 쾅쾅 생산하는 청진제강소와 생산과 과학기술의 일체화를 실현하여 질좋은 합금철을 다량생산하고있는 부령합금철공장에서의 성과 또한 대단하다.

과학연구부문에서도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학기술적방안과 실행대책을 세우고 려명거리 살림집과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 새형의 지열난방체계를 구축하는 연구성과를 내놓은데 이어 여기에 리용되는 수중전동뽐프를 연구제작하였으며 계절에 관계없이 리용할수 있는 용접기술공정을 확립하고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실리가 큰 색콩크리트바닥시공기술도 개발하였다. 이와 함께 백수십건의 선진영농방법과 기술도입을 추진하고 160여종의 우량품종과일나무들을 육성하여 인민들이 그 덕을 보게 될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이렇게 어느 부문, 어느 단위나 그가 누구이든 사명과 임무는 서로 달라도 총진격의 앞장에서 하루를 열흘, 백날 맞잡이로 뛰고 또 뛰며 거창한 창조와 위훈으로 분과 초를 이어갔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는 200일전투가 벌어진 첫날에 벌써 주체철생산계획을 106％로 넘쳐 수행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보다 높은 생산성과를 이룩하고있고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는 매일 수십만kWh의 전력을 증산하고있으며 연사림산사업소에서는 6월초에 년간통나무생산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뿐만아니라 기계, 화학, 경공업, 건재 등 중요공업부문에서 련대적혁신이 일어나 기계설비들과 주체비료, 갖가지 경공업제품들과 다양한 건재류들이 쏟아져나왔다. 특히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로동계급은 다추, 다기대운동을 힘있게 벌려 3년분, 4년분, 5년분, 6년분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였으며 세계적수준의 다양한 새 제품개발과 질제고에 힘을 넣은 선교편직공장, 함흥편직공장, 평양곡산공장, 신의주화장품공장을 비롯한 많은 공장들에서 드세찬 경쟁열풍속에 높은 생산성과를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룩해나가고있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참으로 조국땅에 펼쳐진 현실은 올해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떠벌이는 공화국이 굽어드는 해가 아니라 제힘을 믿고 떨쳐나선 공화국의 힘이 보다 강대해지는 해,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온 나라 강산에 차넘치는 승리와 영광의 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그것은 올해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공화국은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승리의 력사만을 떨쳐갈것이라는 확신을 백배해주고있다.

본사기자 강경수

김책대경수산사업소에서

200 일전투의 불길 거세찬 우리 조국

드높은 열의, 생산적앙양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로동계급이 드높은 열의속에 련일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고있다.

공장일군 김명환은 말하였다.

《지난 6월 우리 공장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이 생산에 있어서나 생산문화, 생활문화에 있어서 최근에 돌아본 공장들중에서 최고의 수준이라는 높은 평가를 주시면서 종업원들이 지난 시기 천리마를 타고 내달리던 전세대

들처럼 만리마시대에도 온 나라의 본보기가 되여야 한다는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지금 공장종업원들은 그이의 사랑과 믿음을 가슴에 새겨안고 뜻깊은 올해를 더욱 빛내이기 위한 충정의 200일전투에 떨쳐나 이미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끝낸데 이어 련속 증산의 동음이 세차게 울려퍼지게 하고있다.》

그의 말대로 공장은 년간비단실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증산경쟁의 동음을 련속 울리고있다. 직장별로 경쟁열풍이 불고 직장들에 가보면 선별, 자견, 조사, 재조의 모든 공정마다에서 작업반별경쟁을 하고있다. 종업원들도 2년분, 3년분 그리고 4년분, 5년분 하며 최고 6년분인민경제계획수행에로 내달리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년간계획완수쯤은 셈에도 없다. 그야말로 거세찬 불길이 일고있다.

참으로 녀성들의 힘과 열정이 대단했다. 그도 그럴것이 공장의 발전력사에도 있듯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나라를 받들어 인민경제계획을 강행돌파해간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이 그들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조사3직장의 조사공 김정향만 보아도 공장에서 배출된 영웅들처럼 살려는 마음을 안고 이번 충정의 200일전투에서 6년분인민경제계획수행을 목표로 내세우고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이곳 종업원들은 일도 일이지만 그 열풍속에서도 학습을 소홀히 하지 않고있다. 더 많은 일을 하자면 그만큼 배워야 한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그들은 짬시간에도 현장에 접근시킨 과학기술보급망을 통해 기술학습을 하고 여러가지 과학기술을 배우는것을 잊지 않고있다.

조사4직장 직장장 주월향은 현장에 접근시킨 과학기술보급망이 종업원들의 기술기능과 생산의욕을 높여주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에서도 한몫하게 하고있다고, 과학기술보급은 직장안의 종업원들이 공장에서 현대적이고 고속화된 설비들을 창안제작하고 생산능력과 제품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서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말하였다.

뿐만아니라 공장에 꾸려진 정양소와 문화회관, 탁아소와 유치원, 진달래원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도 이곳 종업원들의 생산의욕을 불러일으키는데서 큰 역할을 하고있다. 탁아소와 유치원이 손색없이 잘 꾸려져있어 어린이가 달린 종업원들이 걱정없이 생산활동에 전심하게 해주었고 수영장을 갖춘 현대적인 문화후생시설인 진달래원에서 종업원들이 하루일의 피로를 말끔히 풀고나니 더욱 그러하였다.

드높은 열의속에 생산과 과학기술, 생산문화, 생활문화에서 전국의 본보기를 창조한 공장은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주체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날로 높아가는 국산화열풍속에 주체화, 현대화의 본보기공장으로 변모된 평양곡산공장에서 생산적앙양이 일어나고있다.

《은하수》상표를 단 속사탕, 드롭프스, 기름사탕, 겹과자, 백합과자, 물엿, 옥당, 옥쌀기름 등 갖가지 식료품들이 줄지어 흐르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흐뭇하다.

거기에다 95%이상의 설비들이 다 자체의 힘과 기술, 지혜로 설계제작한것이니 더욱 그렇다.

사탕직장 직장장 김광진은 《정말이지 식료품을 전문생산하는 공장에서 수백대에 달하는 생산설비의 현대화는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며 국산화실현의 나날을 돌이켜보았다.

련속식당의기, 배아착수기, 백합과자구이로를 제작하는 과정도 어려웠지만 연질사탕생산에 필요한 용해농축기와 혼합기를 제작할 때 난관은 비할바없이 컸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설비들은 수입해야 하는것으로 여기고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분발하여 일떠섰다.

설계원들은 설계일정을 최대한 앞당기였고 공무직장의 일군들은 콤퓨터모의실험으로 설계의 정확성을 확인한데 기초하여 설비제작에 진입하였다.

그들은 가장 어렵다고 하던 용해농축기본체가공도 프레스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본체를 여러개로 쪼개여 제관하는 방법으로 가공하고 혼합기는 혼합하면서 농축물을 랭각시켜 온도를 균일하게 보장하고 가락모양으로 성형하도록 새롭게 설계제작함으로써 종전에 비해 혼합능력을 근 20배로 끌어올리게 하였다.

자기 힘이 제일이라는 이들의 철의 의지에 떠받들리워 이전에는 수입에 의존하던 근적외선분석기, 다통로형광분석기 등의 분석설비들도 공장의 기술력량과 나라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협조밑에 첨단수준에서 만들어졌으며 강냉이농마를 기질로 하여 만든 효소에 의한 당화물생산공정도 더욱 완비하였다.

뿐만아니라 여러 생산공정의 자동화, 흐름선화, 무균화, 무진화를 실현하였으며 이것을 실시간 감시 및 조종할수 있는 정보체계도 확립하였다.

하여 지금은 온 나라가 따라배우는 주체화의 기치를 든 공장, 자력으로 모든것을 풀어나가는 공장, 현대화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공장으로 되였다.

오늘 공장의 로동계급은 인민생활향상에서 지니고있는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자각하고 맛좋고 영양가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기사장 오현철은 말하였다.

《지금 공장의 전체 로동계급은 뜻깊은 올해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200일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자강력을 만능의 열쇠로 틀어쥐고 설비의 국산화를 더욱 다그쳐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글 본사기자 강진성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미래를 위해 달리는 학습장생산자들

얼마전 민들레학습장공장을 찾은 우리는 한상의 대형사진앞에서 걸음을 옮기지 못하였다.

과학기술전당을 배경으로 행복넘친 학생소년들이 달려나오는 모습을 반영한 사진에는 《달려가자 미래로!》라는 글자가 큼직하게 새겨져있었다.

우리와 만난 민들레관리국 국장 박병호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땀을 흘리며 일하고있습니까. 그것은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사랑하는 마음이 곧 애국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민들레학습장공장에서 울려퍼지는 생산정상화의 동음은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이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나 같다고, 그들의 밝은 웃음과 행복을 위해 공장의 생산을 한순간이라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며 한해에 현재는 5 000만권, 앞으로는 1억 5 000만권의 학습장을 생산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올해를 조선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한 충정의 200일전투에 떨쳐나선 학습장생산자들은 미래를 위해 달리는 남다른 긍지와 보람을 안고 련일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공장의 그 어디를 돌아보아도 들끓는 분위기가 안겨왔다.

타원식풀철제책기앞에 서있는 기대공처녀의 날랜 일솜씨에 의해 도화공작학습장이 순간에 한권씩 나왔고 혼합식접지기에서 자동적으로 접혀진 국어, 수학, 음악학습장 등은 다축철사제책기에서 완성되여 미끄러지듯 흘러나왔다.

몇분도 안되는 사이에 학습장들이 산같이 쌓아졌다.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로동자들의 앙양된 기세에 발맞추어 생산조직과 지휘를 합리적으로 짜고드는 한편 경영활동의 정보화를 더욱 다그쳐나가고있다.

공장에서는 첨단돌파의 목표를 내세우고 완성한 통합생산관리체계에 의거하여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제기되는 모든 정황들을 신속히 처리해나감으로써 생산을 과학화할뿐만아니라 로동자들의 생산의욕도 부쩍 높여주고 있다.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전진하는 오늘의 시대에 언제나 선구자로 살려는 열정을 안고 학습장생산자들은 하루일을 마친 후이면 과학기술보급실을 찾고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달리는 학습장생산자들의 힘찬 걸음은 순간의 멈춤도 모를것이라는것을 확신하며 공장을 떠났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방은심

일터마다 들끓도록

조국에서 올해를 조선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한 충정의 200일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전국의 일터 그 어디에 가보아도 자기의 지혜와 열정을 전투승리에 깡그리 바쳐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그들속에는 힘있는 경제선동으로 일터가 들끓도록 활력을 부어주는 공장, 기업소의 기동예술선동대 대원들과 중앙예술단체 예술인들도 있다. 하지만 보다는 한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자기들도 200일전투의 한 성원이라는 자각을 안고 경제선동활동을 줄기차게 벌려나가는 가정부인들에 대해 먼저 말해야 할것이다.

그들의 모습은 매일 아침 출근길환영에서부터 볼수 있다.

조국땅 어디서나 그러하지만 평양시에서도 많은 가정부인들이 평양역앞을 비롯한 수십여개의 장소마다에 경제선동의 무대를 펼쳐놓고있다. 하나같이 산듯한 복장을 한 그들은 시대정신이 넘치는 노래에 맞추어 북을 치고 기발을 날리며 박력있는 춤동작을 펼쳐보이는데 아무리 출근길이 바쁜 사람이라도 눈길을 뗄줄 모른다. 하기에 시안의 근로자들은 가정부인들의 북소리에 발을 맞추어 일터로 갈 때면 마음마저 부풀어오르고 그날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야말 열의에 충만된다고 말하고있다.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는 전투적인 경제선동활동은 공장, 기업소들에 있는 기동예술선동대 대원들의 활동에서 보다 고조를 이루고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만 보아도 그러하다. 공장에서는 200일전투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선전화들과 속보판, 사회주의경쟁도표, 구호 등을 제시하고 방송선전과 함께 기동예술선동대의 전투적인 노래와 장쾌한 취주악으로 종업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있다. 기동예술선동대 대원들의 활동은 생산의 중요현장들인 방적종합직장과 직포종합직장들에서 더욱 맹렬히 벌어지고있다.

이 공장을 찾은 중앙예술단체 예술인들의 경제선동 또한 생산자들의 열의를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탄광과 발전소에 대한 순회공연을 진행한 후 평양에 올라와 말그대로 만리마속도가 창조되고있는 려명거리건설장에서 경제선동을 한바탕 한 후 곧장 공장으로 달려왔다는 만수대예술단 예술인들, 그들의 전투적인 노래들을 비롯한 공연종목들은 시대의 숨결이 맥박치는것으로 하여 시작부터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였다.

공연을 보고난 직포공 리명순은 만수대예술단 예술인들의 노래와 춤을 보고나니 단숨에의 기상과 억센 힘이 용솟음친다고, 앞으로 200일전투결의목표대로 4년분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완수하겠다고 말하였다. 8월말에 년간계획을 120%로 완수한 자랑을 안은 견방종합직장 4직포직장 직장장 장도경은 우리가 거둔 성과는 경제선동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심장에 불을 다는것과 같은 전투적인 공연과 선동으로 하여 직장종업원들의 기세가 백배해졌다고 말하였다.

200일전투의 불길속에 이렇듯 공장, 기업소들이 들끓고 온 나라가 들끓고있다.

전투적인 경제선동의 힘이 그 불길을 더욱 거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것이다.

그 거세찬 불길로 하여 조국은 만리마의 속도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김정숙평양방직공장 기동예술선동대 대원들

려명거리건설장에서

수도시민들을 혁신과 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 서성구역가정부인들의 힘있는 경제선동

조선속담 (나라와 인민, 향토의 귀중함)

-나라는 백성이 근본이다

인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에서는 인민이 기본으로 된다는것을 이르는 말.

-나라없는 백성은 상가집 개만도 못하다

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인민은 식민지노예로서 갖은 압박과 착취, 천대와 수모를 다 받는다는 뜻으로 나라를 빼앗긴 인민의 억울하고 쓰라린 처지를 비겨 이르는 말.

참고: ① 나라없는 사람은 상가집 개만도 못하다
② 나라없는 백성은 금수보다도 못하다

-민심이 천심

군중의 의사가 가장 옳다는것을 이르는 말.

-백성을 멀리하면 나라가 망한다

지난날에: 인민들의 의사와 리익을 존중하지 않고 멀리하면 나라까지도 위태롭게 된다는것을 이르던 말.

-비둘기는 하늘을 날아도 콩밭을 못 잊는다

비둘기가 콩밭에만 마음을 두듯이 사람은 아무리 좋은데를 떠돌아다녀도 자기가 살던 고장을 잊지 못한다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제 보금자리 사랑할줄 모르는 새(는) 없다

새조차도 제가 사는 보금자리를 사랑하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더 말해서 무엇하랴 하고 이르는 말.

* * *

첫 당조직－건설동지사

카륜회의가 끝난 다음날인 1930년 7월 3일 우리가 새형의 당조직을 내온 사실은 여러 해전에 공개되였고 그 모임에서 한 나의 연설도 이미 세상에 나갔다.

당이 혁명에서 참모부의 역할을 수행하며 당의 역할에 따라 혁명의 승패가 좌우된다는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혁명이 력사의 기관차라면 당은 혁명의 기관차라고 말할수 있다. 그래서 혁명가들은 당을 중시하고 당을 꾸리는 일에 그처럼 큰 심혈을 기울이는것이다.

맑스가 과학적공산주의리론을 창시한 후 실천투쟁의 첫 사업으로 공산주의자동맹을 창건하고 《공산당선언》을 발표한것이 그의 활동에서 가장 큰 공적으로 오늘까지도 찬양되고 있는것은 세계를 개조하기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에서 당이 노는 사명과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의의를 가지기때문인것이다.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상에서 나타났던 여러가지 류형의 기회주의, 개량주의도 구경은 당에 대한 견해와 립장이 그릇된데서 발생된다고 말할수 있다.

공산주의가 새로운 시대사조로서 로동운동무대에 출현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공산주의자들이 지구상에서 이룩해놓은 모든 세기적변혁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당이라는 신성한 이름과 련결되지 않는것이 없다.

우리는 카륜회의에서 내세운 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먼저 당조직을 내오는 사업에 착수하였다.

우리가 새형의 당을 창건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내리고 그 방도를 전면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한것은 조선공산당이 국제당에서 제명되였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부터였다.

우리 나라에서 공산당이 조직된것은 1925년 4월이였다. 각국에서 로동계급의 리익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속속 출현하여 대중을 이끌던 세계적추세에 발을 맞추어 정치적활동의 자유와 권리의 불모지였던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정당이 창건되였다는 사실은 새 사조와 시대적추세에 대한 조선사람들의 정치적감수성이 얼마나 민감하고 풍부하였는가를 실증해준다.

조선공산당의 창건은 조선로동운동과 민족해방운동발전의 필연적귀결이며 합법칙적 산물이였다.

조선공산당은 창건후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속에 사회주의사상을 보급하고 로동운동을 령도하여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령도되는 새로운 페지를 열어놓았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조선공산당이 존재하는 기간 6.10만세시위투쟁과 같은 큰 규모의 투쟁을 지도하여 민족의 기개를 과시하였으며 민족주의자들과의 합작으로 신간회와 같은 대중단체도 만들어 반일애국력량을 집결시키는 사업에도 이바지하였다.

조선공산당이 창건되고 그 령도밑에서 로동운동과 농민운동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중운동이 전개된것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시초를 열어놓은 하나의 력사적사변으로서 민족해방운동발전을 일정하게 추동하였다.

그러나 조선공산당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과 상층인물들의 파쟁으로 하여 1928년에 조직된 력량으로서의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였다.

국제공산당에서는 1928년 여름에 있은 제6차대회에서 조선공산당의 승인을 취소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사실에 있어서 조선공산당이 국제당대렬에서 제명되였음을 의미하는것이였다.

물론 우리는 조선공산당이 존재할 때에도 파쟁을 일삼는 그 상층부에 대하여서는 시답지 않게 여기였다. 그러나 그 당마저 국제당대렬에서 제명되였다는 소식을 들으니 분하고 수치스러운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우리는 그때 국제공산당의 처사에 대하여 야속하게 생각하였다. 이때부터 나는 비록 나이도 어리고 공산주의운동경험도 적지만 우리자신이 주인이 되여 새형의 당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였다.

순결하고 참신한 새형의 당을 창건하자면 여러가지 장애와 난관을 타개해야 하였다.

가장 큰 난점은 공산주의대렬안에 종파주의가 의연히 남아있는것이였다. 종파주의가 청산되지 못하였기때문에 초기공산주의자들은 당재건운동도 통일적으로 하지 못하고 여러 갈래로 분렬된 상태에서 파벌별로 하였다.

조선공산당이 국제당에서 제명처분을 받은 후 우리 나라 공산주의자들은 국내외에서 당을 재건하기 위한 운동을 치렬하게 벌리였다. 그러나 일제의 무차별적인 탄압과 방해책동으로 어느 파벌도 재건에 성공할수 없었다. 화요파와 엠엘파가 재건운동을 포기하고 만주지방에 조직되여있는 총국을 해체한다고 선언한 후 서상파가 국내에서 재건바람을 일으켰지만 그것마저 로출되여 많은 당원들이 감옥에 끌려가는것으로 막을 내리고말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 해산된 당을 재건하거나 파쟁의 악습에 물젖은 기성세대에 의거해가지고서는 혁명적당을 창건할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였다.

당을 창건하는데서 제기되였던 다른 하나의 난관은 국제공산당이 제정한 1국1당제원칙에 의하여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만주지방에서 독자적인 당을 창건하는것이 불가능한 일로 된것이였다.

국제당은 제6차대회에서 채택한 규약의 총칙에서도 국제공산당에 소속되는 개개의 당은 해당 나라의 공산당(국제공산당지부)이라는 명칭을 가지며 매개 나라에서는 하나의 공산당만이 국제당의 지부로서 존재할수 있다는 1국1당제의 원칙을 규정하였다.

국제공산당 동양선전부에서는 1930년 5월 하바롭스크에서 조중공산당대표회의를 소집하고 조선공산당조직문제에 대한 국제당의 결정을 통지해주었다. 국제당은 그 결정에서 재만조선인공산주의자들에게 중국당에 가입하여 중국당원으로서 활동할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이렇게 되여 재건운동에 열을 올리던 공산주의자들속에서 태도를 바꾸어 해체성명을 발표하고 중국당에 전당하는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으며 그 바람을 타고 5.30폭동의 불길이 동만을 휩쓸게 되였다.

조선당원이 중국당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문제는 민족적자부심이 남달리 강한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에게 심각한 자극을 주지 않을수 없었다. 이 원칙을 놓고 우리 동무들은 열기띤 론쟁을 벌리였다. 국제당의 지령을 무책임한 처사, 리해할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난하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그 조치를 공명정대한것으로 평가하는 청년들도 있었으며 국제당이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중국당가입을 요구하는것은 당재건의 가능성을 영영 배제하는것으로 된다고 하면서 의분을 참지 못하고 울화를 터뜨리는 청년들도 있었다.

우리 동무들은 이 문제를 화제에 올리고 나의 립장을 알고싶어하였다.

나는 국제당이 1국1당제원칙에 따라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중국당가입을 요구하는것은 비난받을 처사가 아니며 그 요구가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서 당재건의 가능성을 박탈하는것으로 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말해주었다.

《현재의 형편에서 국제당의 요구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것이다.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자기의 독자적인 정당이 있다면 구태여 무엇때문에 남의 집 곁방살이를 하라고 요구하겠는가. 그러니 국제당의 결정을 존중해주어야 한다. 그것이 국제주의적립장이다. 중국당원의 모자를 써도 조선을 잊지 않고 조선혁명을 위해 싸우면 된다. 그러나 국제당의 지시대로 한다고 하여 독자적인 당건설을 단념하고 무한정 남의 집 곁방살이를 할수는 없다. 조선사람은 조선사람의 당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전당문제에 대한 나의 견해였고 립장이였다.

그러나 그 견해가 1국1당제원칙에 대한 국제당의 해석과 일치한다고 장담할수는 없었다.

(다음호에 계속)

조선로동당의 뿌리가 마련되기까지

10월의 하늘가에 마치와 낫과 붓을 아로새긴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발이 펄펄 휘날린다.

당창건기념일을 맞는 조국의 인민들은 혁명령도의 장구한 기간 단 한번의 로선상착오나 우여곡절도 없이 언제나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온 조선로동당에 대한 끓어오르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이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간고하고도 험난한 혁명의 길을 곳곳이 헤쳐올수 있은 근본비결에 대하여 되새길 때면 당의 뿌리가 억척같이 내려지던 90년전의 《ㅌ. ㄷ》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ㅌ. ㄷ》는 지금으로부터 90년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결성하신 조선의 첫 주체적 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의 략칭이다.

일찌기 어리신 나이에 나라와 민족,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화성의숙에서 공부하시면서 민족주의자들의 낡은 방식대로 혁명을 하여서는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깊이 깨달으시고 조국해방을 위한 새로운 길을 탐구해나가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선진사상을 탐구하는 과정에 조선혁명이 나아갈 길은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이 잘사는 새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는것을 확신하시였다.

그리고 사대주의와 종파주의에 오염되지 않은 참다운 새 세대 혁명가들을 키워야 한다고 보시고 이 사업을 화성의숙의 청년학생들속에서부터 진행하시였다. 하여 그들속에서는 새 사조를 동경하는 기운이 날로 높아갔으며 절대다수가 선진사상을 신봉하게 되였다.

이렇게 조선혁명의 참다운 길, 자주적발전의 길이 탐구되고 핵심력량이 마련된데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적전위조직을 내오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리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주체15(1926)년 9월말 핵심성원들의 모임을 가지고 조선혁명을 떠메고나갈 조직의 필요성을 밝히신 다음 전위조직결성준비를 다그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으며 10월 10일에는 혁명조직을 내오기 위한 예비회의를 여시고 자신께서 구상해오신 조직의 명칭과 성격, 투쟁강령, 활동규범에 대한 문제를 토의에 붙이시였다.

이런 준비사업에 기초하여 주체15(1926)년 10월 17일 화전에서는 타도제국주의동맹(략칭 《ㅌ. ㄷ》)이 결성되였다.

력사상 처음으로 총대에 의거하여 조선혁명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밝히고 인민을 참다운 혁명투쟁, 민족적 및 계급적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한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강령이 있어 조선혁명은 새로운 발전의 길을 걷게 되였으며 그 뿌리에서 당의 강령이 태여나고 당건설과 활동의 원칙이 마련되였을뿐만아니라 당창건의 골간도 육성되게 되였다.

해방후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에 토대하여 당창건위업을 완성하는것을 새 조국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긴급한 문제의 하나로 간주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통일적인 당을 창건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리하여 주체34(1945)년 10월 10일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항일의 혁명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 탄생하게 되였으며 《ㅌ. ㄷ》의 결성으로부터 시작된 당창건의 력사적위업이 빛나게 실현되게 되였다.

당의 뿌리가 튼튼히 마련되였기에 창건이후 조선로동당은 장구한 기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로숙한 당으로 강화되여 자기 발전의 길을 곳곳이 걸어왔다. 당의 현명한 령도아래 세계적인 대정치풍파와 겹쌓인 난관속에서도 인민들은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조국은 위대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구현한 참다운 인민의 나라로 빛을 뿌릴수 있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조국과 인민은 앞으로도 《ㅌ. ㄷ》의 기치를 변함없이 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차게 다그쳐나갈것이다.

본사기자 려해

수 기

맹수사와 함께 50여년

제가 중앙동물원 맹수사에서 일한지도 어언 5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어떻게 녀성의 몸으로 사나운 짐승들을 관리하는 일을 그렇게 오래동안 할수 있는가고 자주 물어보군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의 눈앞에 먼저 떠오르는것은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입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주체101(2012)년 5월 어느날이였습니다.

그날 중앙동물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맹수사에도 들리시였습니다. 그이를 만나뵙게 된 저의 마음은 끝없는 격정으로 세차게 설레였습니다.

제가 올리는 인사를 반갑게 받아주신 그이께서는 산중의 왕다운 위용을 드러내며 우리안을 오락가락하는 여러 마리의 범들을 바라보시며 범이 몇마리나 되는가를 알아보시고 제가 맹수사에서 근 50년동안 일하고있다는 사실을 아시고서는 몹시 기뻐하시면서 제가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성실한 땀을 바치고있다고 치하도 해주시였습니다.

한없이 다정하신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는 저에게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였던 주체97(2008)년 12월 1일이 떠올랐습니다.

개건된 중앙동물원을 보아주시기 위해 현지에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 동물사에 이어 우리 맹수사도 찾으시였습니다.

사자와 흰범, 조선범과 그 새끼들을 차례로 돌아보시며 짐승들의 생태와 관리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장군님께서는 새로 꾸린 맹수들의 야외놀이장안을 가리키시며 저에게 《동무가 저안에 들어가면 일없소?》라고 물으시였습니다.

저는 아무리 먹이를 주는 관리공이라 해도 맹수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제가 들어가도 해친다고 말씀올렸습니다.

미소속에 저의 말을 들으시며 장군님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저 동무가 맹수사에서 오래동안 일하였다고 하시면서 맹수사에 몇년동안 있었으며 나이는 몇살인가고 다시 물으시였습니다.

제가 맹수사에서 40여년 일하였으며 나이는 62살이 된다고 말씀올리자 그이께서는 이렇게 따뜻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맹수관리작업반장을 하는 김순옥동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중앙동물원에 배치되여 지금까지 40여년동안 맹수관리공을 하고있는것은 좋은 일입니다. 반장동무의 나이가 62살이면 앞으로 10년동안 더 일하여야 합니다.》

저의 인생을 그렇듯 값높이 빛내여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받아안느라니 공민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저에게 공훈사양공의 칭호와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표창과 금반지까지 안겨주시고 줄수 있는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준 나라의 은덕이 되새겨졌고 그럴수록 그 은덕에 꼭 보답할 결의가 깊이 새겨졌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 사랑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그대로 이어지고있습니다. 우리 당,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동물원을 찾으실 때마다 맹수사에 들리시여 저를 만나주시였으며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때에는 저의 토론을 들어주시고 공민의 최고영예인 로력영웅칭호까지 안겨주도록 해주시였습니다.

로력영웅칭호를 받던 날 저에게 제일먼저 떠오른것은 사랑과 은정만을 베풀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이였습니다.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고도 영광이란 영광은 다 저에게 안겨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을 어찌 저를 낳아 키워준 한 어머니의 사랑에 비할수 있겠습니까.

하기에 저는 나 하나만이 아닌 이 땅에 사는 수천만 자식들모두를 한품에 안아 보살펴주시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품, 조선로동당의 품이야말로 진정 위대한 어머니품이라고 소리높이 웨칩니다.

중앙동물원 로력영웅
공훈사양공 김순옥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를 이룩하시여

지금 조국의 군대와 인민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는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주체86(1997)년 10월 8일]되신 19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의 수반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장군님을 최고수위에 높이 모심으로써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필승불패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당의 불패성은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데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간직하시고 조선로동당을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대표하고 옹호하는 당으로,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대중과 혈연적으로 이어진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당령도사는 인민의 요구와 의사를 집대성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시고 그것을 혁명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오신 력사로 수놓아져있다. 장군님께 있어서 인민은 언제나 스승이였으며 인민의 의사와 리익은 당의 로선과 정책작성의 출발적기초였다.

그이께서는 당령도의 첫 시기부터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그들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시였다.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인민들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시며 인민들의 소박한 말도 정책에 담으시고 무엇을 하나 창조하여도 인민들이 좋아하는가, 인민들이 기뻐하는가부터 먼저 물어보시며 인민의 기쁨에서 삶의 보람을 찾으신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인민들은 세월이 흘러도 잊지 못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선군시대경제건설로선과 농업혁명방침, 과학기술정책 등 모든 로선과 정책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면서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하여 내놓으신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인민들에게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참된 삶의 길로 이끌어주는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시였다.

당사업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일군들이 인민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지니고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자식을 위하듯 따뜻이 보살펴주는 조선로동당의 사랑과 믿음의 정치는 인민들의 마음속에 당과 영원히 생사운명을 같이할 신념이 뿌리내리게 하고 당과 대중을 하나의 혈맥으로 이어지게 한 사상정신적힘의 원천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는것을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 투쟁해나가는 당으로 건설하시였다.

일찌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제시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걸린 문제를 풀어주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자욱은 공장과 농촌, 어촌 등 조국땅 그 어디에나 뜨겁게 어려있다.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지니신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 나라의 땅이 사회주의토지답게 일신되는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공장과 기업소, 양어장과 과수농장,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건설된것 등 인민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될수 있었다.

하기에 인민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라 부르며 당을 위해 헌신하는것을 가장 숭고한 량심과 도덕의리로 간주하고 당의 령도를 충정다해 받들어왔으며 또 받들어나가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로동당은 대중과 혼연일체가 되여 전진하는 혁명적당으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들의 지지를 받는 필승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사회과학원 김철웅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사상

사회주의위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며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혁명세력과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전진하는 혁명위업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하는데 참답게 이바지하는 사상은 바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심화발전시키신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과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다.

오늘 조국땅에 펼쳐진 자랑찬 현실은 **김일성-김정일**주의야말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사상이라는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우선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사상과 신념의 제일강자들을 키워내는 사상정신적자양분이기때문이다.

사상과 신념으로 하는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혁명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혁명투쟁에서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사상적요인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나갈것을 근본원칙으로 내세우고있다.

사람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자기 수령, 자기 제도가 제일이고 자기의 사상과 위업은 필승불패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지닌 견결한 혁명투사들로 억세게 자라났으며 혁명과 건설에서는 끊임없는 기적이 창조되였다.

오늘 조국땅에서 벌어지고있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께서 내놓으신 지원의 원대한 사상과 불굴의 신념으로 전체인민을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 5대교양과 첨입식정치사상사업,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사업 등은 다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조선로동당의 정책)옹위전으로 거창한 변혁의 새 력사를 창조해나가기 위한데 있다. 올해에 있은 70일전투기간에 이룩된 성과들과 200일전투기간 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들은 사상사업을 백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나간데 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사상으로 되는것은 또한 자력자강으로 강성번영을 안아오게 하는 투쟁의 지침이기때문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철저한 자주의 사상이다. 남에게 의존해서는 언제가도 자주적발전을 이룩할수 없으며 오직 자기 힘을 굳게 믿고 투쟁하는데 민족번영의 결정적담보가 있다.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높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방식, 투쟁방식을 철저히 구현하였기에 조국인민은 지난 세기 중엽 대국주의자들의 압력과 간섭을 단호히 쳐갈기며 혁명과 건설을 자기의 리익과 실정에 맞게 자기 식대로 정정당당하게 밀고나갈수 있었다. 그리고 그처럼 어려웠던 지난 세기말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제기하고 힘차게 매진해올수 있었다.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사상으로 되는것은 또한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마련하는 근본초석이기때문이다.

사회주의의 위력은 곧 단결의 위력이다. 하나의 중심,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굳게 뭉친 단결의 힘은 핵무기보다 더 위력하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며 수령, 당, 대중이 일심동체가 될 때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 혁명의 주체를 이루게 되고 그것은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으로 된다는것, 이것이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밝힌 독창적인 사상이다.

단결의 사상적기초가 든든하였기에 조국은 적대세력의 온갖 반공화국책동속에서도 끄떡하지 않았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줄기차게 전진하여올수 있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온갖 허위와 날조, 압력과 봉쇄로 공화국의 내부를 와해시켜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였지만 령도자와 군대와 인민이 사상과 뜻, 정과 의리로 굳게 결속된 일심단결이 있어 조국은 자기가 선택한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올수 있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있어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사회과학원 리진옥

방문기

《세상에 부럼없어라》 노래소리 울리는 곳에서

수업을 받고있는 원아들

《세상에 부럼없어라》, 이 노래는 조국인민들이 사랑하고 즐겨부르는 노래이다. 얼마전 우리는 이 노래소리 높이 울리는 평양중등학원을 찾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은정속에 새로 일떠선 학원이 개원된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벌써 원아들의 행복한 생활이 푹 배여있는듯싶어 우리도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그래서 학원에 들어서자 체육관부터 먼저 들린 우리였다.

우리가 다기능체육홀에 들어서니 거기에서는 초급반 원아들의 탁구경기가 한창이였다. 서로 이기고 지며 올라가던 경기는 3:1의 성적으로 홍팀의 승리로 끝났다. 그들은 다름아닌 초급 2학년 1반 원아들이였다. 주장은 김만철이였다. 다른 원아들과 특별히 구별되는 점은 없지만 눈에 도는 영채만은 류달랐다. 우리가 자기 소개를 하자 만철은 학원에 대한 소개를 자기가 하겠다고 말하는것이였다. 곁에 있던 만철이의 담임교원 림송미도 빙그레 웃으며 찬성하였다.

그는 먼저 우리를 지하에 있는 실내수영장으로 안내하였다. 수영장은 아름다운 색갈로 구별된 7개 주로의 수영장과 물놀이장으로 되여있었는데 서로 물장구를 치며 마음껏 웃고 떠드는 원아들로 흥성이고있었다. 그런가 하면 탈의실에서는 원아들이 옷장의 매칸마다에서 수영복, 물안경, 모자, 세면수건과 빗이 담겨진 비닐바구니를 꺼내들고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샴푸, 린스며 살결물과 물크림, 머리고착제가 있는 거울앞에서 저마다 자기 모습을 보며 붐비고있었다. 그들의 얼굴에 비낀 밝은 웃음은 정녕 부모가 있는 학생들보다 더 밝고 티없는 웃음으로 안겨왔다. 원아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나라의 혜택에 가슴이 찌르르해졌다.

우리는 행복에 겨워, 기쁨에 겨워 웃고 떠드는 원아들의 모습을 뒤에 두고 교사로 향하였다.

《우리 학원에는 수십개의 교실, 실험실, 실습실들이 있으며 3개 호동의 기숙사와 관리건물, 보조건물 등이 있습니다.》라며 만철은 우리를 배운 지식과 원리적기초를 공고히 다져나갈수 있게 꾸려진 외국어학습실, 생물실험실, 음악무용실과 식료실습실, 재봉실습실로 안내하였다. 돌아볼수록 학원은 설계도 잘되고 시공도

배운 지식을 다져간다.

정보기술학습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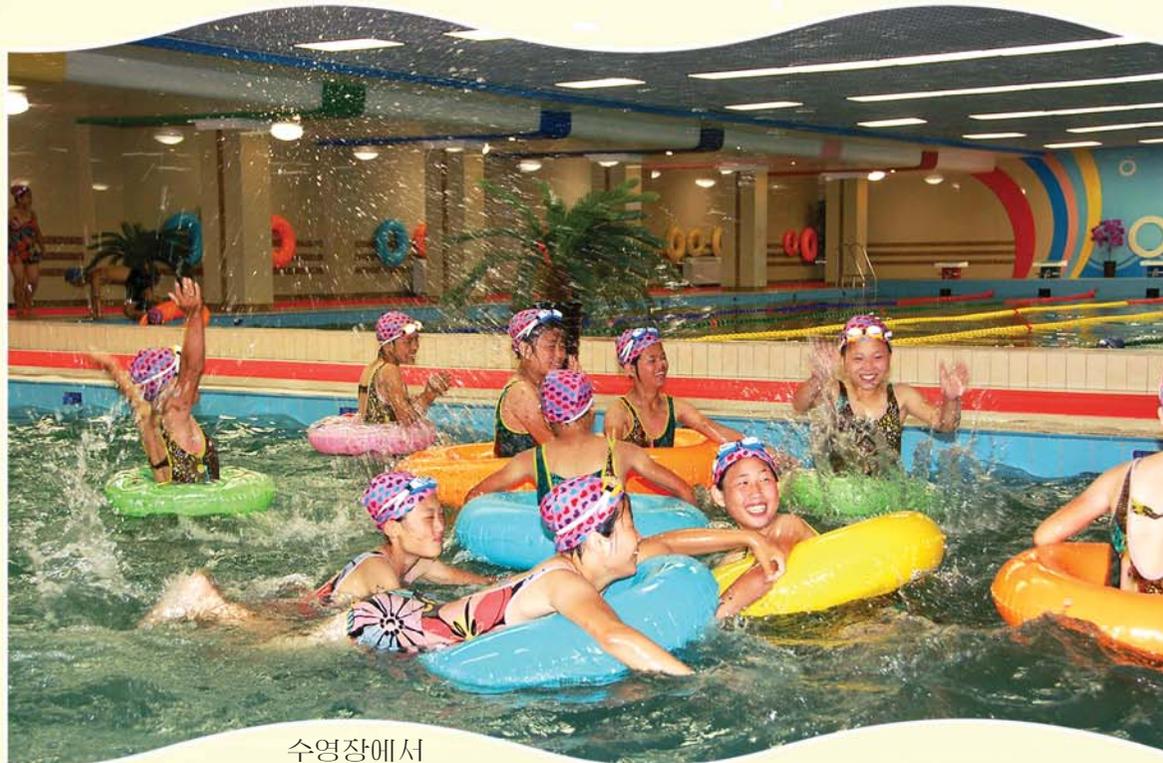
외국어학습시간

생물실험실

전자기계실습실

수영장에서

기숙사의 호실

식당

기숙사

나무랄데가 없는 멋쟁이였다. 모든 요소요소들을 원아들의 정신도덕적, 육체적발전에 도움을 주는 공간, 그들을 교육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 장소들로 꾸려진 교사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만철이네 교실로 걸음을 옮기였다.

원아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게 여러가지 상식자료들로 꽉 찬 량쪽벽을 따라가느라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곳이라고 써붙인 교실이 나졌다.

《이곳이 바로 우리 교실입니다.》라며 만철이가 으쓱해서 들어서는 다기능화, 정보화가 실현된 교실은 척 보기만 하여도 마음에 들었다.

이윽고 수업이 시작되였다. 수학시간이였다. 교원이 무리수에 대한 해석을 하였는데 만철이가 교원의 물음에 얼마나 대답을 잘하는지 그에게는 확실히 남다른 수학적재능이 있었다. 전자칠판에 전자지시봉으로 물음문제를 쓰기도 하고 또 원아들의 심리에 맞게 동화상으로 그들의 생각을 계발시켜주는 수학교원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담임교원 림송미는 말하였다.

《지난 7월 우리 평양중등학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학원의 교직원들은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 친부모의 다심한 사랑, 티없이 맑고 깨끗한 교육자적량심을 지니고 원아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저희들은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기고 원아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을 잘하여 그들을 꼭 나라의 믿음직한 인재로 키우겠습니다.》

어느덧 하루수업이 끝났다.

만철은 앞으로 꼭 이름을 날리는 과학자가 되겠다고 우리와 약속하고는 다른 원아들과 함께 교사에서 울려나오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를 들으며 도서실로, 실습실로, 기숙사로 향하였다.

자기들에게 더 훌륭한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준 나라의 은덕에 공부를 잘하는것으로 보답하려는 원아들의 깨끗한 마음을 읽으며 우리는 중등학원을 나섰다.

글 본사기자 한신애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미술수업시간

우리 행복 노래불러요.

재봉실습

체육수업

방문기

너도나도 배우는 곳 (3)

원격강의실

학술문답실

학술토론회실

지적제품교류전시장

과학기술전당에 대한 우리의 취재길은 학술문답실과 학술토론회실들 그리고 과학자숙소로 이어졌다.

우리는 《과학기술전당에 찾아오는 사람들뿐아니라 전국각지의 과학기술보급실리용자들에게 콤퓨터망을 통하여 여러가지 과학기술 및 사회생활문제들에 대한 문답봉사를 해주는 학술문답실의 리용률이 날로 높아가고있습니다.》라는 정보봉사처의 일군 박정기의 말을 들으며 먼저 학술문답실에 들어섰다.

문답실에서는 강사들이 정보수요자들에 대한 문답봉사를 하고 여러 사람이 한자리에 앉아 서로의 견해들을 나누기도 하고있었다.

그곳에는 함경남도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에서 온 차진철도 있었다.

그는 전국의 이름있는 과학자들을 상담원으로 망라하고있는 문답실에서 문답관리자와의 련계밑에 문자대화, 음성대화, 영상대화에 의한 실시간봉사를 받을수 있어 정말 좋다고, 이번에도 기업소의 과학기술보급실에서 《위성정보에 의한 낙지어장탐색》, 《3배체련어육종기술》을 비롯한 여러건의 문제들에 대한 국가과학원 과학자들의 원격강의를 받았다고, 이것 역시 과학기술전당 학술문답실과의 련계밑에 이루어진것으로써 이런 체계로 하여 모르고있던 문제들뿐아니라 최신성과자료들도 제때에 알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흥분된 심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우리는 더 많은 과학기술을 소유하기 위해 시간을 바쳐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뒤에 남기고 2층으로 올라가는 승강기에 몸을 실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주위를 둘러보니 뜻밖에도 얼마전 취재차로 남포시에 갔을 때 만났던 남포시교수강습소 라진국선생이 손을 흔들며 바쁜 걸음을 하는것이였다.

우리와 만난 그는 반가움 절반, 자랑 절반을 섞어가며 자기는 교육부문에서 조직한 제22차 전국교수교양경험발표회 및 과목별교수방법토론회에 참가하였는데 전국각지에서 온 400여명의 우수한 교원들중 한사람이라는것이였다.

그의 말에 흥심이 난 우리는 저도 모르게 학술토론회실1로 향하였다.

토론회실에는 남포시에서 온 라진국선생뿐아니라 동포들에게 고향소식을 전하기 위해 평안북도 구장군에 갔을 때 낯을 익혔던 구장초급중학교 교원 신영철도 있었다.

그는 이렇게 자기의 교수방법에 대해 토론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배우기도 하니 수준이 올라가는것이 알린다고 격동된 심정을 터놓았다.

그런 열띤 목소리는 과학기술보급일군들을 양성하고 재교육하기 위한 강습을 진행하는 정보기술강의실과 콤퓨터망을 통해 세계과학기술발전추세, 국내외의 과학기술성과, 콤퓨터실기, 외국어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있는 원격강의실들에서도 울려나왔다.

우리와 동행한 박정기는 지금 원격강의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매우 높다고 하면서 최근에 진행되는 《품질관리의 기본방도》, 《고속철길시공기술의 발전동향에 대하여》, 《현대선박의 발전추세》, 《비료가 적은 조건에서 소출을 높이기 위한 방도》, 《나노재료설계리론의 발전과정에 대하여》, 《전자기적물때방지장치개발》 등의 원격강의들은 경제강국건설에서 나서는 실천적문제들을 푸는데 도움을 주고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침실과 서재

과학자숙소

원격강의실뿐아니라 지적제품교류전시장에서도 머지않아 일떠설 인재강국의 모습을 그려볼수 있었다.

전시장에서는 발명과 특허, 과학기술성과를 비롯한 지적제품들을 정상적으로 전시하고 교류와 류통을 활성화하며 여러가지 기술봉사를 진행하고있었다.

최신국내과학기술성과자료, 특허, 발명자료, 국가망을 통하여 수집한 기술제품자료 등이 자료기지화되여있는 전시장에서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는 조국의 벅찬 숨결을 페부로 느끼며 우리는 과학자숙소에도 들려보았다.

23층으로 되여있는 숙소는 매개 방들이 과학자, 기술자, 교원, 연구사들을 비롯하여 이곳에서 숙식하는 사람들의 집필사업 등 그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수 있게 설계되여있어 손님들의 호평을 받고있었다.

신의주시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수학려행을 왔다는 신의주시 청송소학교 교원 김준향은 말하였다.

《낮에는 낮대로 학생들을 데리고 과학기술전당을 돌아보고 밤에는 밤대로 이곳에서 습득한 내용을 첨부하여 교수안집필사업도 할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한번 오면는 떠나기 아쉬워 돌아가는 걸음이 늦어지는것 같습니다.》

숙소를 나서는 우리의 눈앞에 어둠을 밀어내며 황홀한 불야경이 펼쳐졌다.

그 불야경과 더불어 더 큰 행복, 더 좋은 래일이 다가오고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하며 우리는 과학기술전당을 떠났다.

글 본사기자 강진성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수기

삶의 보금자리

나는 평양양로원에서 살고 있는 김춘화이다.

오늘도 우리 양로원으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찾아왔다. 흔히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오면 그러듯이 그들도 우리에게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고 묻는것이였다. 그래서 책도 보고 취미에 따라 운동을 하는가 하면 터밭에 나가 몸에 맞게 밭일도 한다고 하루생활을 그대로 말해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머리를 기웃거리였다. 우리 원장선생이 양로원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에 대하여, 나라의 년로자보호정책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자 그들은 머리를 끄덕이더니 엄지손가락을 내흔드는것이였다.

그렇다. 우리들처럼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들은 없을것이다.

사실 양로원이 새로 건설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이렇게 훌륭한 집이 건설되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우리들이였다. 그러던 지난해 3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양로원건설장을 찾으신 소식을 듣고서야 우리는 그이께서 양로원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설계로부터 자재보장대책에 이르기까지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며 양로원을 공화국의 년로자보호정책이 철저히 구현된 로동당시대의 본보기건축물로 일떠세울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래서 새로 건설되는 양로원에서 살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우리 원수님께서 또다시 완공된 평양양로원을 돌아보실줄이야.

오랜 시간을 바쳐 양로원의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은 정녕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 주체37(1948)년 5월 승호군 만달리에 있는 양로원을 찾으시여 이불과 밥그릇에 이르기까지 생활의 구석구석을 세심히 보살펴주시며 나라에서 로인님들을 잘 돌봐드리겠다고 뜨겁게 교시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모습그대로였다. 년로자들을 위해 기울이시는 절세위인들의 사랑속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이 채택되고 조선년로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가 조직되여 년로자들의 건강과 생활을 전적으로 국가가 맡아 돌봐주고있는것이 우리 조국이다.

새 집에 이사오던 날 우리들은 날아에는 하얀 학들을 형상한 울타리속에 서있는 멋들어진 조선식기와집앞에서 그만 걸음을 멈추고말았다. 아름다운 대동강을 앞에 두고 평양육아원, 애육원과 나란히 서있는 민족의 향취가 짙게 풍기는 집이 정말 우리 집이라는것이 믿어지지 않았던것이다.

기쁨속에, 눈물속에 우리들은 양로원을 돌아보았다. 아담하면서도 궁궐같은 집에는 보양생들의 신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꾸려진 온돌침실, 침대침실들과 가정적분위기가 살아나게 시공한 식사실이 있는가 하면 치료실과 목욕탕, 미용실, 세탁소도 있고 적당한 운동과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할수 있는 운동실, 오락실, 도서실, 영화관이 꾸려져있으며 산보도 하고 야외식사도 할수 있게 건설된 내정도 있다. 그리고 밥맛이 날 정도로 일도 할수 있는 현대적인 수경온실과 터밭까지 꾸려져있다.

김춘화(오른쪽 두번째)를 비롯한 보양생들

이 사랑의 집에서 우리가 받아안은 사랑과 은정을 다 말하려면 끝이 없다. 각종 고기와 물고기, 첫물과일과 값진 화장품들, 조선옷들과 여름, 겨울운동복 그리고 에스키모까지 실은 차들이 날마다, 계절마다 양로원으로 달려오고 김만유병원을 비롯한 중앙병원의사선생들이 우리가 앓을세라 찾아오고있다.

나라와 인민을 위해 크게 해놓은 일이란 별로 없는 우리 보양생들이 나라와 온 사회의 관심과 보살핌속에 혁명의 선배로, 웃사람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인생의 로년기에도 값높은 삶을 꽃피워가도록 해주는 이런 인민적시책을 펼치는 나라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자본주의나라에서라면 이미 이 세상사람이 아니였을 우리들을 위해 이런 훌륭한 생활조건과 생활환경이 보장된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우리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이다.

평양양로원 보양생 김춘화

상식

우리 나라에서 몇가지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한 년대

목화: 우리 나라에서는 문익점이 원나라에 사신으로 갔다올 때 붓대속에 목화종자를 가지고와서 1364년에 심었는데 그것이 재배의 시초로 되였다.

고구마: 1764년에 처음 종자를 가져다 시험재배하였고 그후 점차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방들에 퍼졌다. 남감저, 번저라고도 하였는데 1834년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는 재배법을 소개한 《종저보》(서유구 저)가 출판된 후 급속히 보급되였다.

감자: 1824년-1825년에 우리 나라에 들어왔다. 북감저, 올감자, 보리감자라고도 하였는데 우리 나라에 들어온지 얼마 안되여 함경도지방에서는 감자로 한해량식을 마련하는 농민들이 생겨났으며 20여년후에는 남쪽에서도 흉년에 알곡대신 심는 작물로서 널리 재배되였다.

담배: 16세기말에 들어온 담배는 17세기초부터 널리 재배되였다.

락화생: 1830년에 처음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 * *

태권도모국의 주인공들로

경치아름다운 모란봉을 비롯한 조국의 여러곳에 가보면 태권도를 수련하는 사람들을 볼수 있다.

어린이건 늙은이건 조국인민들은 누구나 정통무도인 태권도를 사랑하고 즐겨하고있다.

더우기 어린이들은 소학교때부터 태권도를 배우고있다.

락랑구역 충성고급중학교에도 태권도소조가 있다.

이 소조는 평양시뿐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태권도를 잘하는 학교로 소문이 났다.

학교에 전시되여있는 수많은 우승컵들과 300여개의 금, 은메달들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주체84(1995)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국내경기들과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기대회에서 1등, 2등을 쟁취, 주체102(2013)년에는 전승컵 전국태권도강자경기대회에서 우승…

여기에는 올해 49살인 태권도소조 지도교원 김형진의 노력이 깃들어있다.

원래 김형진교원은 조선체육대학에 입학할 때 권투를 지망하고 전공하였었다. 하지만 대학교정에서 민족의 넋과 기상이 어려있는 태권도에 왜서인지 마음이 더 쏠리게 되였다. 하여 대학시절 전공을 바꾸었다. 이로써 그는 대학졸업후 중학교 태권도소조 지도교원이 되였다.

《태권도는 력사적으로 슬기와 용맹을 떨쳐온 조선민족의 억센 기상과 넋이 깃들어있는 전통적인 고유한 운동입니다. 태권도는 하면 할수록 조선민족된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느끼게 합니다.》라고 김형진교원은 말하였다.

형진교원은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원리적으로 배워주어 적성체질의 학생들과 태권도를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이 인차 태권도에 정이 들게 하고있다.

소조에서는 육체훈련의 지표를 늘여 학생들이 정신력과 인내력을 키우고 난도높은 동작들을 어렵지 않게 수행하도록 하고있다.

수백회의 주먹지르기, 각이한 위치에서의 발차기, 교치성훈련…

이와 함께 학생들이 자기의 개성적특성에 맞는 특기동작들을 소유하도록 가르쳐주고있으며 그 위력이 맞서기에서 나타나도록 하고있다.

강철명, 차은룡, 전철준 학생들은 360° 돌려차기를 비롯하여 난도높은 동작들을 정확하게 수행하고있으며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경기들에서 금메달을 양보하지 않고있다.

특히 강철명학생은 이번에 진행된 제42차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기대회에서 개인틀, 57㎏급맞서기, 호신술, 단체틀, 단체맞서기에 참가하여 5개의 금메달을 받았다. 반응이 빠르고 조약이 좋은 그는 소조에서 제일 촉망되는 선수이다.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 철명학생은 태권도강자가 되는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학교소조를 졸업한 많은 학생들이 전문선수단들에서 활약하고있으며 국제경기들에서 이름을 떨치고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군자루에서 보는 금야의 모습

동포들의 고향소식을 전해가는 우리의 취재길은 함경남도 금야군에로 이어졌다.

뻐스에서 내려 금야읍 중심으로 들어서는데 군일군인 신일웅이 우리를 마중하였다. 그는 군자루(루정)에서 보는 읍의 경치가 이채롭다며 그곳으로 우리를 이끄는것이였다. 처음 세운 년대는 알수 없으나 1687년에 다시 지었다는 군자루는 옛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있었다.

아닌게아니라 읍의 전경이 한눈에 안겨왔고 풍치 또한 이를데 없었다. 여러갈래로 뻗어간 도로들과 록음속에 들어앉은 다층살림집들, 편의봉사시설들, 감나무속에 묻힌 동네…

금야의 아름다운 모습에 흠뻑 심취되여있는 우리에게 신일웅은 말하였다.

《해방전 보잘것 없는 잠업과 농사가 기본이였던 금야가 오늘은 인민들이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향유하는 군으로 그 모습을 새로이 하고있습니다.》

군의 모습을 사진에 담기 위해 군자루를 내린 우리의 걸음은 금야군탁아소로 향하였다.

ㄷ자모양으로 된 탁아소는 지방의 특성에 맞으면서도 아담하게 꾸려져있었다. 지능놀이실, 물놀이장 등 그 어느 방에 들려도 재롱을 피우는 아이들의 모습이 무척 귀여웠다. 아이들이 하나같이 보동보동하고 튼튼해 보인다는 우리의 말에 소장 김은숙은 금야청년목장의 염소젖산유덕이라고, 읍안의 탁아소와 유치원아이들, 군주민들이 그 덕을 톡톡히 보고있다고 말하는것이였다.

은근히 목장을 자랑하고싶어하는 그의 마음을 읽은 우리는 룡원리에 있다는 목장으로 취재길을 옮기였다.

목장입구에서 우리와 만난 리용호지배인은 《목장에서는 영양가와 수확고가 높은 〈애국풀〉과 사탕수수를 많이 심어 집짐승먹이문제를 원만히 해결한 결과 고기와 젖생산을 이전보다 훨씬 늘이게 되였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병풍처럼 둘러막힌 깊은 산골짜기에는 염소, 양, 돼지호동들과 염소젖가공장, 과학기술보급실, 소형수력발전소, 양어장 등이 구색이 맞게 전개되여있었다. 그런가 하면 염소와 양떼들이 풀판을 따라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모습은 장관을 이루며 산허리를 감도는 구름을 련상케 하였다.

최근에만도 많은 양들을 길러 군내 협동농장들에 보내준것은 물론 많은 고기와 산유를 생산하여 읍안의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과 인민들에게 공급해주었다는 방목공처녀들의 기쁨넘친 목소리에는 맡은 일에 대한 애착과 긍지가 어려있었다.

목장을 돌아본 우리는 군일군의 안내를 받으며 미래원, 제1인민병원 등 군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기초식품공장, 종이공장, 견직공장을 비롯한 지방산업공장들에서는 자기 고장의 원료에 의거한 인민소비품들이 쏟아져나오고있었다. 그리고 남새온실, 버섯공장, 그물우리양어장, 가진수산사업소 등에서는 높은 생산성과로 인민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고있었다.

그뿐이 아니다.

먼 옛날 량반들의 유흥장소였던 세신포에서부터 읍까지 자연흐름식상수관공사를 진행하

유적 군자루

금야청년목장의 방목지에서

과학기술을 습득하고있는 근로자들

금야군탁아소

동흥휴양소

금야강군민발전소

시간과 애국

시간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는 나름대로 각이하다.

얼마전 국가나노기술국에 취재를 갔던 우리는 과학기술보급처 연구사인 권재정에게 시간에 대한 그의 견해에 대해 물은적이 있었다.

흰서리가 내린 머리를 쓸어넘기며 우리에게 미소를 지어보이던 그는 조용히 《시간만큼 정확한것은 없습니다. 저는 시간을 애국의 높이를 재는 자로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는것이였다.

그는 여느 사람들같으면 《성쌓고 남은 돌》이라는 자아의식에 빠져 손맥을 놓고 주저앉을수도 있을 일흔살을 넘긴 나이였다.

하지만 그는 대형물소독수제조설비를 제작하여 도입함으로써 국가에 많은 리익을 주었으며 《국가나노기술통보》와 같은 기술잡지발간도 맡아하고있다.

돌이켜보면 인민과학자 후보원사 교수 박사인 권재정의 한생은 주체48(1959)년 조국의 품에 안겨서야 빛날수 있었다.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를 졸업하고 쉽지 않은 성공일로를 질주하여온 그였다.

그는 27살에 벌써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거두어 과학자로서의 첫선을 훌륭히 보이였다.

련이어 그는 불변색티탄분말착색감을 제조하여 국제발명권을 수여받았다. 그가 연구제조한 착색감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의 현판과 5월1일경기장 봉화대 등 대기념비적건축물들에 특색있게 리용된것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적극 쓰이고있다.

티탄과 관련한 연구는 그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교시에서 찾아쥔 종자였다.

언제인가 그가 일하는 연구소에 현대적인 진공용해설비를 보내주시며 우리 나라에 풍부한 티탄자원을 적극 리용할데 대하여 주신 수령님의 교시를 받아안았을 때 권재정의 심장은 애국의 뜨거운 피로 세차게 높뛰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그 높으신 애국의 뜻을 내 끝까지 따르리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은정어린 생일상을 받아안고

그는 연구소의 연구사들과 지혜와 힘을 합쳐나갔다. 티탄합금의 용해방법과 가공방법이 당시까지는 알려진것이 없어 미개척지나 같았으며 그로하여 첫걸음부터 힘들게 떼지 않으면 안되였다. 애로와 난관도 많았고 쓰라린 실패의 고뇌도 맛보았다. 티탄합금이 성공하였을 때에는 어느 부문에 먼저 도입하는가 하는것이 급선무로 나섰다. 그에게는 인간을 제일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인간의 생명을 위하여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 의학부문만큼 적중한 부문이 없다고 생각되였다. 하여 그는 뼈접합형태기억합금못개발과 생산공정의 확립, 형태기억합금스텐트로 전위선비대증의 배뇨장애를 개선하기 위한 림상적 연구, 형태기억합금라선체에 의한 경피적혈관확장술 등에 티탄합금을 활용하여 나라의 의학재료기술을 더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권재정

형태기억합금스텐트는 임의의 모양으로 변화되여 협착부위에 도달하면 체온에 의하여 미리 기억시킨 상태로 되돌아가 협착된 부위를 안전하게 확장시켜주는 첨단재료이다. 그 재질이 내식성과 내마모성, 튐성과 가공성, 생체적합성이 대단히 좋은것으로 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의 희망을 안겨주게 되였다.

나라에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온 권재정에게 인민과학자 후보원사 교수 박사의 값높은 영예를 안겨주고 여러 대회들에 대표로 남먼저 불러주었다. 두해전 1월 권재정은 일흔번째 생일을 맞으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생일상을 감격속에 받아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였다.

일본에 살고있는 친척들과 함께
(권재정-왼쪽에서 세번째)

권재정의 안해인 김영희녀성은 《저의 남편은 늘 저에게 과학기술이라는 기관차를 앞세우고 모든 부문이 세계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 지금 자기에게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말하군 합니다.》라고 하였다.

권재정은 이렇게 오늘도 자기의 본분을 잊지 않고 탐구의 시간을 바쳐가고있다.

자신의 심장속에 간직된 애국의 높이는 오직 시간만이 잴수 있다는것을 믿고있기에…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여 군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도움을 주고 읍에 건설된 남산공원과 안불사, 2 130여년 자란 금야은행나무로 하여 소문난 동흥리의 휴양소에서도 인민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끊길줄 몰랐다.

우리는 읍에서 살고있는 중국단동기업가협회 부회장 김용찬의 외조카 박병순녀성의 집에도 들려보았다. 감나무들로 둘러싸인 집은 아담하면서도 무척 깨끗하였다.

몇년전 외삼촌을 만나던 때가 엊그제같다며 그는 《다음번에 외삼촌이 조국에 오면 전변을 안아오고있는 금야의 모습과 함께 날로 살림이 늘어나는 우리의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싶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취재를 끝낸 우리는 군자루에 다시 올랐다. 눈앞으로는 우리가 만나본 사람들과 금야의 모든것이 새롭게 다시 안겨왔다. 그와 함께 우리의 머리속에는 이런 생각이 갈마들었다.

군자루는 이제 또 이 땅에서 어떤 전변의 모습을 보게 될것인지.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알루미니움과 건강

현대인의 몸안에서 알루미니움(늄)함량은 원시인보다 3배나 높다고 한다. 허약한 사람에게서 뇌안의 늄함량은 건강한 사람보다 3배나 더 많다.

몸안에서 늄함량이 정상보다 5배이상 높으면 일부 효소들이 파괴되여 소화기능이 낮아지며 신경계통도 심하게 손상된다.

1970년대초에 한 학자는 늄이 조기로인성지둔과 관련된다고 하였으며 1980년에는 로인성지둔증때 변성된 뇌신경섬유에 늄이 침착되여있다는것을, 1982년에는 진전마비환자의 신경원에서 늄함량이 건강한 사람보다 3배나 높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이러한 사실은 늄을 오래동안 섭취하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것을 보여준다.

늄가마에 물을 붓고 20분동안 끓이면 늄용해량은 쇠가마의 9.7배, 법랑가마의 4배나 된다.

늄가마는 짧은 시간동안 끓일 때에는 쓰고 오래동안 끓일 때에는 쇠가마를 쓰는것이 좋다.

* * *

중국 길림성 연길시 연변대학 년로자협회 허동진작은아버지 앞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작은아버지,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친척방문으로 연길시에 있는 작은아버지집에 갔다온 때로부터 1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저의 기억속에는 그것이 어제일처럼 생생히 떠오르군 합니다.

그때 심장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던 작은어머니의 건강은 어떠한지. 면회를 갔을 때 저의 손을 잡고 놓지 못하던 작은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온 집안이 다 무고하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펜을 든것은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김형직사범대학 정보과학부에서 강좌장으로 사업하는 제가 작은아버지에게 다녀온 후 적지 않은 학위소유자들을 키워내고 경공업발전에 의의가 있는 실험기구를 창안한것으로 하여 부교수의 학직을 받았습니다. 물론 학위는 이미전에 받았구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로동당시대의 건축물로 희한하게 일떠선 미래과학자거리에 이사를 했습니다.

작은아버지도 텔레비죤과 출판물을 통해 우리 미래과학자거리에 대하여 잘 알고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교원, 연구사들을 위해 세워진 훌륭한 살림집에 이사짐을 풀어놓던 날 나는 눈시울을 적시고야말았습니다.

글쎄 제가 이 집을 짓는데 흙 한삽 떠놓았습니까, 벽돌 한장 고였습니까.

그러나 나라에서는 후대들을 위해 묵묵히 자기를 바쳐가는 우리 교원들에게 이 새 집을 무상으로 주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제 집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전번에 텔레비죤과 신문에서 《제 집마련이 평생소원》이 되여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서방사람들의 모습을 보느라니 인민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느끼게 되였습니다.

작은아버지, 기쁨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맏아들 철남이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하고 평양정보기술국에서 일하는데 이제는 손꼽히는 연구사로 되였습니다. 한번은 그 애 직장에 우리 로친이 갔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하는지 몸둘바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인물곱고 일솜씨고운 처녀가 우리 철남이를 마음에 두었다는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철남이도 그 처녀를 점찍어두었댔다고 제 어머니에게 실토를 하는통에 제꺽 혼사준비를 하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미래과학자거리에 이사를 한 11월 그달에 맏아들결혼식을 하였습니다.

군사복무를 마치고 김형직사범대학 철학부에서 공부하는 둘째아들 철웅이는 형 장가가는 날 뭐가 그리도 좋은지 딱 제가 장가를 가는것만 같아 하여 모두가 배를 그러쥐고 웃었습니다.

온 집안에 웃음이 흘러넘치니 돌아가신 아버지생각과 함께 멀리에 있는 작은아버지생각이 절로 나더군요.

작은아버지, 정말 그립고 보고싶습니다.

작은아버지도 꼭 이사한 우리 집을 한번 다녀가십시오.

저는 작은아버지랑 만날 그날을 그리며 고마운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결심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식들도 같은 심정입니다.

그럼 상봉의 그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평양시 평천구역 미래동 43인민반
허원길조카 올림

줄기차게 이어지는 애국애족의 길

지난 5월 나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재일본조선인축하단 단장으로 참가하였다.

영광의 그 대회에서 나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얼마나 아끼고 내세워주시는가를 깊이 절감하게 되였다.

원수님께서 당 제7차대회의 력사적인 개회사에서 불러주신 총결기간 곁을 떠난 항일투사들을 비롯한 혁명렬사들의 이름들가운데는 글쎄 한덕수의장동지의 이름도 있는것이였다. 그의 한생을 조선로동당의 력사와 더불어 빛내여주시며 원수님께서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주실 때 나는 함께 있는 자식보다 집떠난 자식을 더 걱정하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해외에 있는 우리들을 생각하시는 그이의 사랑앞에 저도 모르게 눈굽을 적시였다. 뿐만아니라 그이께서는 내가 랑독하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축하문도 들어주시고 총련중앙상임위원회가 드리는 축기도 몸소 받아주시였으며 당 제7차대회경축 평양시군중대회 및 군중시위때에는 주석단에 서있는 나의 손을 잡아주시며 더 많은 일을 하라고 고무도 해주시였다.

총련결성 60돐때에는 강령적서한을 보내주시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기 위한 사업방향, 그 수행을 위한 5대과업과 방도까지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조선대학교창립 60돐때에는 축하문을 보내주시여 재일조선인운동의 명맥을 훌륭히 이어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여 우리 조국은 끝없이 승승장구할것이며 재일조선인운동은 오직 주체의 길, 애국애족의 길로 줄기차게 전진해나갈것이다.

총련 오사까본부 위원장 부영욱

미래에로 질주해가는 나라

이렇게 고국에 온 나의 감정을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솔직히 말하여 내가 평양에 올 때 나를 아는 사람들은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곳에 왜 가는가고 놀라와하였다.

그러나 그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가를 평양방문의 나날에 나는 절감하였다.

나는 이번에 과학기술전당과 미래과학자거리, 주체사상탑과 당창건기념탑 그리고 개선문과 경상유치원 등 평양시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그곳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조선을 깔보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깊이 느끼게 되였다.

주체사상탑전망대에 올라가니 온 평양시가 한눈에 내려다보이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폭의 그림 같았다. 주체사상탑밑으로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이며 그 강변을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쭉쭉 뻗어간 도로를 따라 달리는 뻐스와 승용차들 그리고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의 모습은 전쟁이 아니라 승승장구하며 미래에로 질주하는 고국의 모습 그대로였다.

주체사상탑뿐아니라 미래과학자거리와 경상유치원에서 받은 감흥도 매우 컸다. 미래과학자거리에 가보고서는 이런 멋있는 집에서 하루라도 살고싶었고 경상유치원을 돌아보고서는 이런 곳에서 피아노도 치고 기타를 타는 손자, 손녀들을 키우고싶은 생각에 잠을 다 이루지 못하였다.

이런 훌륭한 고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으며 설사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여도 고국이 이길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제아무리 힘이 강하다고 떠들어대도 제명을 다 산 제국주의가 미래를 향하여 질주해나가는 조선을 이길수는 없다.

중국 심양시 정봉화

과학기술전당에서

고국방문

놀라움속에, 기쁨속에

- 재중조선인총련합회 할빈시지부방문단 -

《아침저녁이 다르게 발전하는 조국의 현실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것은 조국을 방문하는 해외동포들속에서 울려나오는 말이다.

얼마전에 조국을 방문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할빈시지부 동포들속에서도 이 말이 울려나왔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손길이 뜨겁게 어려있는 미림승마구락부와 미래과학자거리를 돌아보면서 경탄의 목소리를 연송 울리던 동포들은 현대적으로 꾸려진 과학기술전당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상상밖이다. 지금까지 듣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도 발전한 조국이다. 전후 재더미만 남았던 조국이 아닌가.》고 하며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조국의 유명한 시인 조기천이 시 《조선은 싸운다》에서 남북 삼천리에 재더미만 남았다고 했던것처럼 사방 먼지만 흩날리던 조국이 오늘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당당한 핵보유국, 우주개발국으로 되였다는 긍지를 안고 동포들은 국가선물관, 개선문 등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위대한 우리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신 조선민족된 긍지와 자부심이 가슴에 꽉 차오른다.》고 흥분된 심정을 터놓았다.

하기에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돌아본 단장 허순히는 말하였다.

《이렇듯 현대적인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훌륭한 공연을 보니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전에 조국에 왔을 때 느꼈던 감정보다 오늘은 또 다른 느낌이다. 조국의 발전속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발전하는 기적을 창조하도록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싶다.》

조국방문의 나날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일떠선 창전거리와 인민극장,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릉라곱등어관, 문수물놀이장, 묘향산 등 조국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동포들은 즐거운 나날을 보내였다.

글 본사기자 전 민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조선우표박물관을 찾아

주체사상탑을 돌아보았다.

애국렬사릉을 찾은 동포들

항일혁명렬사추모비를 돌아보았다.

문수물놀이장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였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조선민족된 긍지와 자부심

나는 재로조선공민중앙협회 부회장 김경렬이다.

나에게서 류다른 점이 있다면 내가 노래를 좋아하는것이다. 그래서인지 나의 둘째딸이 노래도 잘 부르고 춤 또한 기가 막히게 잘 춘다. 이렇게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 와보니 이번에 그애를 데리고오지 못한것이 몹시 후회된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들가운데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도 있다.

이국의 들가에 피여난 꽃도 내 나라 꽃보다 곱지 못하다는 노래는 부를수록 조국의 귀중함과 함께 조선민족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준다.

아무리 세상을 둘러보아도 내 조국이 제일이라는 노래의 구절구절은 마치 해외에서 사는 동포들의 마음을 엿본듯이 방불하게 그려내여 나는 늘 즐겁거나 기쁜 일이 있으면 이 노래를 부르군 한다.

자기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그것은 바로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오는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생각해보면 조선민족처럼 오랜 력사를 가지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한강토에서 살아온 민족은 없다.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며 예로부터 외래침략자들과 압제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슬기로운 조선민족에 대하여 돌이켜볼수록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 조국에서는 슬기롭고 용감하며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며 도덕의리를 귀중히 여기는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성을 적극 살리고 끊임없이 발전시키고있는것이다.

언제인가 우리 동포들이 모였을 때였다. 내가 그들에게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성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자 그들은 대뜸 《내 나라 제일로 좋아》노래를 부르는것였다. 자기의것이 제일이라는 사상을 유순한 가사로 구사해주는 노래가 우리모두에게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살며 일하는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는것을 새겨주었던것이다.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는 누구도 살아갈수 없으며 자기 운명을 개척할수 없다. 개인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이 뗄수 없이 련결되여있기때문에 우리 조국에서는 하나의 문학예술작품에도 모든 사회성원들이 옳바른 민족관을 가지도록 하는데 종자와 주제를 담고있는것이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을 놓고보아도 그렇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기본사상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자 개인의 운명이며 민족의 생명속에 개인의 생명이 있다는것이다.

《아리랑》의 선률속에 민족의 운명과 함께 흘러온 지난날의 자기 생활을 되새겨보게 하는 영화가 주는 감흥은 참으로 크다.

영화를 보느라면 주인공들의 모습이 바로 자기로 안겨오고 그럴수록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 우리 민족이 반드시 하나가 되여야 한다는것을 깊이 새겨안게 된다.

오늘 조선사람에게 있어서 민족의 분렬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형성된 제도상차이나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 계급과 계층의 차이는 문제로 되지 않는다. 온 민족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우리 민족끼리리념밑에 민족자주의 길로 나아갈 때 조국의 통일은 반드시 이룩된다.

조선민족의 피와 넋을 지닌 사람이라면 어떤 사회제도하에서 어느 계급과 계층에 속해있건 국내에서 살건 해외에서 살건 모두가 자신의 운명을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결합시키고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나는 앞으로 우리 협회성원들에게 나날이 변모되는 우리 조국의 모습을 그대로 알려주어 그들의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는 정신을 심어주어 통일을 위한 애국의 길에서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게 하겠다.

재로조선공민중앙협회 부회장 김경렬

헌신적봉사의 70년

올해의 10월 18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가 자기의 창립 70돐을 맞이하는 날이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의 건강과 복리를 위하여 헌신적봉사를 수놓아온 적십자회!

사람들은 적십자회 성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수고에 대하여 잊지 않고있다.

적십자회가 걸어온 길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적십자회 서기장 리호림은 이렇게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해방후 모든것이 어려웠지만 나라의 전반적지역들에 급파되고있던 각종 질병들과 전염병들로부터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의 건강과 복리를 하루빨리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민들의 자원적인 보건위생 및 구호단체로서 적십자조직을 내올것을 발기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그 조직과 활동에서 제기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방향과 구체적인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새 조국건설시기와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후복구건설시기를 비롯하여 혁명과 건설의 전과정에 걸쳐 적십자회가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자기의 사명과 본분에 맞게 재난관리부, 사회의료봉사부, 물위생부, 공보부, 동포사업부, 물자보장부 등 여러 부서들로 이루어진 회는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후원과 적십자회 일군들,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재난방지 및 완화, 보건 및 구급처치, 물위생분야에서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큰물, 태풍, 해일, 산사태와 같은 각종 재난에 대처하여 피해자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들의 생활을 안착시키며 피해후과를 가시기 위한 활동, 인민들의 건강복리를 증진시키고 전염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구급의료봉사활동, 보건위생선전사업, 나라의 분렬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불행을 덜어주는 사업, 해외동포들에게 인도주의적방조 제공…

사람들은 주체103(2014)년 황해남도 해주시와 벽성군을 비롯하여 나라의 여러 지역들을 휩쓴 큰물피해와 주체104(2015)년에 있은 라선시큰물피해때를 잊지 않고있다. 피해가 일어나 48시간안에 현지에 다달은 재난관리부와 사회의료봉사부, 물위생부, 적십자지부 일군들과 자원봉사자들은 한지에 나앉은 사람들에게 이불, 천막, 부엌세간은 물론 가정용위생함과 물통, 물정화알약에 이르기까지 많은 물자들을 마련해주었으며 물소독설비도 설치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음료수를 보장해주었다.

고마움에 뜨거운 눈물을 짓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고마움의 인사는 조선로동당과 정부에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한다.

이뿐이 아니다.

온 나라를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한 전사회적운동도 힘차게 벌려 수많은 나무들을 심은것은 물론 수만그루의 양묘능력도 조성하였다.

이외에도 10여만명에 달하는 재일조선인들의 귀국을 실현하고 비전향장기수들의 송환과 외세에 의해 북과 남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에도 큰 기여를 하였으며 이상기후현상으로 각종 재해를 입은 수십개의 나라들에 있는 자매단체들을 방조하기 위한 적극적인 후원사업들에도 참가하였다.

적십자재난긴급대응 상무협의회를 진행하고있는 적십자회 일군들

적십자회는 중앙과 도, 시, 군의 하부말단까지 자기의 지부를 가지고있으며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과 청소년회원들을 가지고있다.

《더 훌륭하게, 더 많은 일을, 더 많은 혜택자들에게!》라는 적십자단체들이 추켜든 구호높이 자기의 긍지스러운 년륜을 새길 일념으로 적십자회는 오늘도 남모르는 헌신의 길을 수놓아가고있다.

본사기자 엄향심

칠골교회당의 피아노소리

얼마전 일요일 아침이였다. 시침이 10시를 가리키기 바쁘게 칠골교회당안에서는 은은한 피아노소리가 울리였다.

그 피아노반주에 맞추어 신자들이 찬송가를 불렀다.

눈먼 사람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고 묶이운 사람에게는 해방을 주는 하느님에 대한 신자들의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찬송가의 구절마다에 가득히 실려있었다.

《사랑, 정의, 평화, 통일》이라는 그리스도교의 기본주제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자기의 부모, 형제, 자매와 민족을 사랑할수 있다.》는 기본교리가 신자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는 노래였다.

백봉일목사는 이 시간 례배를 보는 남조선의 동포들과 해외동포들에게도 뜨거운 인사를 보낸다고 하면서 칠골교회 신자들에게 우리 민족의 부활은 통일이라는 내용의 설교를 시작하였다.

그는 신자들에게 말로만 애국을 웨치지 말아야 하며 분렬된 조국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현실을 보지 못하는 신앙은 무엇에도 쓸데가 없다, 눈앞에 보이는 자기의 부모,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수 있겠는가고 하며 분렬된 겨레의 운명을 생각하고 통일에 몸바치는것이 하느님을 참답게 사랑하는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도적에게 집을 지켜달라고 하지 못하듯이, 자기 집에 불을 지른 사람에게 불을 꺼달라고 할수 없듯이 신자들모두가 외세의 존심을 버리고 통일을 위해 민족의 십자가를 쥐기 바란다고 절절히 당부하였다.

축복기도를 하고있는 백봉일목사

목사의 설교에 뒤이어 성가대 신자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피아노소리에 실리여 숭엄하게 울리였다.

돌이켜보면 1899년 칠골교회당이 세워지던 그때 미국선교사들은 신자들에게 미국은 《하느님》의 나라이고 미국인들은 《하느님》의 《천사》라고 설교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그 《천사》들은 하느님의 신성한 이름을 더럽히며 지난 세기 50년대초에 조선전쟁을 도발하였고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하여 공화국의 수많은 교회당들을 파괴함으로써 례배를 보던 많은 신자들에게도 참혹한 죽음을 주었다.

공화국에서는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신앙생활의 거점인 교회당들을 원상대로 복구하여줌으로써 그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하는 애국애족의 길에 자신들의 깨끗한 신앙심을 바쳐가도록 하였다.

재오스트랄리아동포 정영화를 비롯한 해외동포들과 남조선의 인사들, 외국인들도 평양을 방문할 때마다 칠골교회당을 찾아와 민족의 륭성번영과 화목 그리고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 조국의 통일이 하루빨리 이룩되기를 바라며 기도를 드리고있다.

성가대 피아노연주가인 권성림신자는 《교회의 기도는 찬송가로 시작되고 찬송가로 끝난다. 칠골교회의 신자들은 례배시간의 전기간 나의 피아노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조국통일의 소망을 안고 기도한다.》고 말하였다.

그렇다. 칠골교회당의 피아노소리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민족의 통일념원을 담아싣고 끝없이 울려갈것이다.

글 본사기자 련 해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주일례배 주체105(2016)년 2월 촬영

찬송가를 부르는 성가대 신자들

17세기 실학자 류형원

류형원(1622년-1673년)의 자는 덕부, 호는 반계이다. 서울의 량반집안에서 태여난 류형원은 어려서부터 강의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강직한 품성을 지니였다.

1636년에 외래침략자들이 나라에 침입하여왔을 때 부모친척들과 함께 피난을 가던 그는 도중에 강도들을 만나게 되였다. 이때 그는 조금도 당황하거나 주저함이 없이 강도들을 막아나서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 세상에 부모없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자기 부모를 존경할줄 안다면 남의 부모도 존경하여야 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부모를 놀라게 하지 말라.》

어린 소년의 강직하고 대담한 태도앞에 강도들은 더는 어쩌지 못하고 흩어져가버렸다고 한다.

그는 또한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당파싸움과 부패타락한 생활만 일삼는 량반들을 증오하였다. 하기에 그는 벼슬길에 나서지조차 않았다.

그는 대신들이 그의 인물과 학문을 보고 벼슬을 주려고 하였을 때에도 끝끝내 벼슬길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고 한다.

진사시에서 합격되였으나 그는 전라도 부안군 우반동에 내려가 일생을 학문연구에 바쳤다. 이 시기에 그는 나라의 각 지방들을 답사하고 연구하여 《기행일록》을 썼고 《동국지》를 저술하여 우리 나라 지리를 상세히 밝혔으며 《지리군서》도 저술하였다. 또한 그는 《리기총론》, 《론학》, 《물리》, 《경설문답》, 《인심도심》, 《사단칠정》 등 철학적인 책들도 썼으며 우리 나라의 력사와 언어를 해명한 《동사강목조례》, 《동국력사가고》, 《정음지남》 등을 썼다.

그리고 외래침략으로부터 조국을 방위하고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국방대책과 군사학에 관한 《기효신서절요》, 《무경사서초》 등의 책들도 썼다. 특히 그는 수많은 자료들을 깊이 연구한데 기초하여 《반계수록》(26권)을 집필하였다. 봉건사회의 경제적기초인 토지소유문제를 비롯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각 부문의 모순을 조절할데 대한 일련의 견해를 제기한 이 책은 1737년에 출판되였다. 류형원의 이러한 사상은 어디까지나 봉건제도를 재수습하고 봉건통치를 강화하기 위한데 있었으나 실학형성기에 실학의 사상리론적기초를 확고히 마련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 *

민족의 향기

고려청자의 매력

얼마전 만수대창작사에 취재갔던 제가 미술작품전시관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전시관에 들어서니 조국을 방문한 해외동포들이 기념품들을 사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중의 한 동포는 고려청자기들을 여러가지로 사고있었습니다.

청자기를 하나도 아니고 여러개나 사는 그의 모습이 저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거기에 무슨 사연이 있는것이 아니겠는가고 묻는 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 저의 어머니의 고향이 개성인데 그 지방에는 고려청자가 많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한여름철에도 그 청자그릇에 담은 음식이 잘 쉬지 않았다고 또 물을 담아 마시면 물맛도 더 좋고 시원한것 같았다고 자주 이야기하군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서 이렇게… 그런데 고려청자기가 다양하고 보는것마다 우아하니 다 사고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호에 내 조국의 맑은 정기를 담은 고려청자기에 대하여 소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생을 도자기창작에 바쳐가고있는 만수대창작사 도자기창작단 공훈예술가 임경익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청자기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체로 고려청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것은 고려시기에 나온 청자기가 세계적으로 이름이 났기때문입니다.

많은 력사책들에는 고려청자기를 청도, 비색자기, 청자 등으로 불러왔습니다.

고려청자기가 이름이 난것은 우선 그 색이 매우 아름답기때문입니다.

맑은 물속의 흰 차돌우에 비낀 푸른색과도 같은 비취색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흉내도 낼수 없는 고유한 우리의 색입니다.

고려청자기는 또한 그 형태가 기발하고 종류가 다양할뿐아니라 무늬가 풍부하고 특출합니다.

고려자기는 무늬장식에서 오목새김, 돋을새김, 긁기 등 조각적장식수법과 붓으로 그리는 회화적수법, 무늬박이(상감)수법을 썼습니다.

무늬박이를 하는데 있어서도 선조들은 색갈의 조화와 푸른색의 효과를 솜씨있게 나타내기 위하여 푸른것과 흰것의 자연스러운 조화라든가 흰색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학의 다리나 국화잎줄기만은 검은색을 박은것, 흰색과 검은색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진사의 붉은색을 점점이 박아넣은것을 비롯하여 색채의 효과를 두드러지게 한것 등 훌륭한 예술적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일성상계관인이며 인민예술가였던 저의 아버지 임사준도 고려청자기만이 가지고있는 그 특성을 살리면서도 장식기법을 현대적으로 새롭게 한 〈진사보시기〉, 〈갈대와 오리 장식꽃〉, 〈잉어부각꽃병〉, 〈소나무와 학 상감장식꽃병〉, 〈청자국화무늬단지〉 등 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여 도자공예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오늘 고려청자기에 대한 인기는 날로 높아가고있습니다. 이 자기에 담근 장에는 곰팽이가 끼지 않아서인지 가정주부들속에서 인기가 더욱 높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고려청자기의 높은 예술성으로 하여 가정들에서 가보처럼 전해가고있습니다.》

동포여러분, 세대와 세대를 이어 빛을 뿌리는 고려청자기를 하나 들고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고려청자기에만 있는 고유한 균렬들이 보일것이며 그것들이 모여서 내는 청아하고 우아한 소리가 들릴것입니다.

민족의 유산을 귀중히 여기고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조국인민들의 마음을 잊지 말고 이역땅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담긴 고려청자기를 생활에 널리 리용해주십시오.

그러면 동포여러분의 생활은 민족의 향취로 차고넘칠것입니다.

우아하고 특색있는 청자기를 창작하기 위해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최유성

사화

뛰여난 계책으로

때는 고구려시기였다.

어느해인가 한해도 다 저물어가는 11월의 어느날, 고구려의 위나암성에 급보가 날아들었다. 외적의 대부대가 고구려국경을 넘어 국내에로 공격해온다는것이였다.

급보를 받은 신대왕(165년-179년)은 국상인 명림답부를 비롯한 관리들을 불러들이고 물었다.

《외적들이 대병력으로 불의에 침입해오고있는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관리들은 서로 바라보면서 대답을 못하였다.

이윽고 관리들은 왕에게 한마디씩 제의하였다.

《우리의 군사가 적고 싸움준비가 안되였다고 대응해나서지 않는다면 적들은 우리를 업신여기고 더 날칠것이니 속히 출전하여 맞받아 싸워야 하는줄 아나이다.》

이렇게 한 관리가 아뢰이자 곁에 있던 다른 관리가 호응해나섰다.

《그렇소이다. 적들은 많고 우리 군사는 적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는 산이 험하고 길이 좁으니 지형을 잘 리용하여 싸운다면 두려울것이 없다고 보나이다.》

그러자 여러 신하들이 머리를 끄덕이며 모두 긍정했다.

《그러니 맞받아 출전하여 싸운단 말이지… 그래 다른 의견들은 없느냐?》고 왕이 물었다. 이때 국상인 명림답부가 왕의 앞으로 한걸음 나서며 《소신의 생각은 그렇지 않소이다.》라고 하며 자기 의견을 말하였다.

《병법에 이르기를 적과 싸워이기자면 우선 자신을 알고 적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나이다. 우의 의견들은 자신을 알고 취하는 대책으로는 되오나 적을 알고 취하는 대책으로까지는 되지 못하는줄로 생각하나이다.》

왕이 다시 물었다.

《적을 알고 취하는 대책이 아니라구?》

그러자 명림답부는 이렇게 말하였다.

《적들을 안다는것은 적의 약점을 안다는 말이오니 지금 외적들의 약점은 우리 나라로 깊이 침입해들어오자면 천리길이나 되기때문에 가지고온 군량으로는 모자라고 거리가 멀어 가져올수도 없을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점을 리용하여 들판을 비워놓고 수도성까지 끌어들인 다음 성을 며칠만 지켜내면 적들은 굶주려 더 싸우지 못하게 될것이니 그때 강한 군사로 공격하면 적들은 반항을 못하고 물러갈것입니다. 그 기회를 타서 험한 산과 좁은 길을 리용하여 적을 몰아치면 힘들지 않게 싸워이길수 있을것이라고 보나이다.》

그러자 모든 신하들이 훌륭한 계책이라고 지지해나섰다.

그리하여 왕은 국상의 계책대로 전국에 령을 내려 벌판들과 마을들에 쌀과 소금을 남겨놓지 못하도록 하고 성들마다에 만단의 싸움준비를 갖추게 하였다.

얼마뒤에 적들은 이 계책대로 무난히 위나암성까지 들어오게 되였다. 이어 적들은 공격을 개시하였지만 완강히 방어하는 고구려군사들에 의해 물러서군 하였다.

날이 흐르자 적들은 군량이 떨어지고 모진 굶주림과 함께 지쳐 쓰러지게 되였다. 그렇게 되자 적들은 하는수없이 싸움을 포기하고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명림답부가 군사들을 거느리고 적을 추격하며 족쳐댔다. 적들은 별반 맞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리로 녹아났다.

이처럼 뛰여난 계책으로 아군의 손실이 없이 외래침략자들의 대병력을 통쾌하게 족쳐 큰 승리를 이룩하자 왕은 대단히 기뻐하며 명림답부에게 후한 상을 하사하였다.

* * *

단군릉이 전하는 이야기

조국에서는 해마다 10월 3일이면 개천절민족공동행사가 단군릉앞에서 진행되군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한자리에 모여 진행하는 행사는 단군민족의 훌륭한 전통을 살리며 조국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장애물을 걷어내고 민족의 화해와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온 겨레의 드팀없는 의지를 반영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고있다.

하지만 그때문만이 아니다.

개천절기념행사가 진행될수록 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귀중히 여기시고 빛내여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로고가 참가자들마다의 가슴속에 질게 어려와서이다.

조선민족의 첫 국가인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문명의 시원을 열어놓은 민족의 원시조는 단군이였다.

그러나 지난 시기에는 민족의 원시조에 관한 문제가 똑똑히 해명되지 못하고있었다.

반만년의 력사를 자랑하는 조선민족에게 있어서 원시조를 찾아내는 문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력사학자들은 단군이 신화적인물이라는 기성관념에만 사로잡혀 단군릉을 발굴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날 그릇된 력사관에 의하여 이지러진 민족사의 수많은 사건들과 사실들을 하나하나 바로잡도록 하시였으며 력사학자들에게 단군연구를 심화시킬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력사문헌들과 색이 바랜 잡지들까지 읽으시며 자료를 하나하나 찾으시여 력사학자들에게 보내주기도 하시는 과정에 평양의 강동에 인민들이 대를 이어 제를 지내면서 일제의 군사적통치시기에도 지켜낸 단군릉이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되시였다.

그리하여 주체82(1993)년 1월부터 단군릉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사업을 진행한 결과 단군릉에서 5천여년전의것으로 확인된 유골이 나오고 그것이 단군과 그의 안해라는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였다.

또한 어느 력사기록에는 단군을 조선의 왕이라고 써놓은것이 발견되였고 단군왕대를 47대까지 기록한 자료들도 나타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건국시조인 단군의 유골과 유물을 찾게 된것은 우리 고고학의 대승리라고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단군이 평양일대에서 태여나 여기에서 나라를 세우고 생을 마쳤다는것이 확증된 조건에서 평양일대에 원시조의 무덤인 단군릉을 개건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주체82(1993)년 9월 27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팔십고령의 몸으로 강동땅을 찾으시여 앞이 훤히 트인 대박산기슭 야산마루의 명당자리에 개건할 단군릉터를 잡아주시고 단군릉을 시조릉답게 꾸릴 설계도를 환히 펼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매우 분망하신 속에서도 릉건설에서 미흡한 점이 있을세라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릉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단군릉을 후세에 길이 전할 기념비적건축물이 되게 시대성과 전통적인 민족풍습의 관례를 잘 살려 건설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독특하고 웅장한 단군릉이 1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건설되게 되였다.

하기에 오늘도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단군릉에 모여 개천절민족공동행사를 뜻깊게 진행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솔미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 위원장의 항의성명

남조선당국과 인민들에게

친애하는 남녘의 동포여러분,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활동하는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 성원들은 남조선과 미국이 소위 북조선핵위협을 구실로 우리 조국의 남녘땅 성주군에 미싸일방위체계 《싸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소식을 매우 커다란 우려속에 접하게 되였다.

미국이 다른 모든 민족들의 머리우에 군림하는 일극세계를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더러운 날조모략정책을 추구하고있는가 하는것은 온 세상에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최근 수십년동안 수백만명의 무고한 인민들이 생명을 잃고 수천만명의 리재민들이 발생한 모든 군사적충돌은 미국이 직접 개입하였거나 관여한것들이였다.

미국은 이란의 미싸일위협을 구실로 로므니아와 뽈스까에 미싸일방위체계를 수립하였고 북조선의 《위협》을 막기 위해 일본과 얼래스커, 남조선에 또다른 미싸일방위체계를 수립한다고 세상사람들을 속여왔다.

형제자매여러분, 세계지도를 보라.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는 명백히 로씨야와 중국을 겨냥하고있다. 북조선의 《핵위협》이라는 구실은 남조선인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조선민족의 생존을 위험에 몰아넣기 위한 뻔뻔스러운 날조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이러한 철면피한 책동에 우리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인 일본이 쾌재를 올리며 적극 지지하고있다.

우리는 《싸드》가 단순히 방어용무기가 아니며 주변국들에 대한 종심깊은 정찰 및 공격을 목적으로 한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에 미싸일방위체계를 전개한다면 그것은 주민들에 대한 전자기파피해는 물론 응당한 보복을 불러오는 요인으로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은 절대로 남녘의 형제자매들에게 먼저 손을 대지 않을것이지만 미국의 도발로부터는 자체방위와 해당한 응징타격으로 대답할것이다.

미국의 평화옹호주의자들도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싸드》배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 중국에 대한 최대의 도발행위이며 방어용으로는 무용지물인 이 체계에 대한 대가는 바로 남조선인민들이 톡톡히 치르게 될것이라고 하였다.

남조선에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를 수립한다면 그것은 세계전략적안전측면에서 볼 때 조선반도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체계에 대한 로씨야와 중국의 대응조치는 의심할바없이 모든 남조선인민을 파녁으로 할것이다.

과연 당신들은 미국에 대한 두려움과 군사 및 재정적종속관계로 인하여 말 한마디 못하는 노예로 전락되였는가?

만일 핵공격이 일어난다면 지구상에서 전체 조선민족이 사멸될수 있는 생존위협을 놓고 그래 당신들은 항거 한마디 못한단 말인가?

남녘형제여러분, 제정신을 차리시오!

남조선에서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를 반대하여 들고일어나라!

우리가 일본침략자들로부터 해방되였을 때처럼 남녘형제모두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어깨를 겯고 미국의 원한에 찬 노예생활로부터 벗어나라!

잃어버린 조선민족의 존엄과 명예를 되찾으라!

우리는 힘을 합쳐야 근면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인민의 위대함을 만방에 과시하고 영원히 우리 민족의 존엄을 빛내일수 있다.

우리 재로동포들은 남조선땅에 미국의 《싸드》체계를 가져다놓는것을 견결히 반대하며 세계의 모든 사회단체들이 우리의 항의에 합세할것을 호소한다.

통일되고 평화로운 조선 만세!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를 대표하여
위원장 김칠성
2016년 7월 27일, 모스크바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력사적인 10. 4선언이 발표된 때로부터 어느덧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6. 15통일시대에 온 겨레는 6. 15북남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 4선언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 겨레의 념원인 자주통일, 평화번영은 반드시 이룩된다는것을 페부로 절감하였다.

오늘도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의 가슴속에서는 6. 15통일시대에 새겨진 진리를 반드시 실현하려면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웨침이 울려나오고있다.

북남관계개선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통일의 동반자로서 함께 손잡고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는것이다.

그러자면 남조선당국이 동족대결관념을 버리고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로가지며 상대방을 자극하는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에 저촉되는 각종 법률적, 제도적장치들을 없애버리며 관계발전에 유익한 실천적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괴뢰들은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를 바로가지기는커녕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시대와 겨레의 한결같은 요구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대결책동에 기승을 부리고있다. 년초부터 공화국을 반대하는 《키 리졸브》, 《독수리 16》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은 남조선괴뢰들은 《북의 핵위협》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외세와 야합하여 《림팩》,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 합동군사연습들을 련이어 벌려놓는가 하면 지난 7월에는 미국의 고고도미싸일방위체계인 《싸드》배치까지 결정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남조선괴뢰들은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동족과 한사코 엇서는것이 스스로 파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짓이라는것을 명심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하며 공화국의 인내성에도 한계가 있다는것을 새겨두어야 한다.

북남관계개선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북과 남이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며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해나가는것이다.

지금 공화국은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해나갈것을 바라고있다.

지금처럼 북남군사당국간 의사통로가 완전히 차단되여있고 서로 총부리를 겨눈 첨예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언제 어디서 무장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며 그것이 전쟁으로 번져지는것을 막을수 없다. 북과 남의 현 파국상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얼마든지 극복해나갈수 있다. 만일 남조선당국이 대화와 협상을 바라는 시대적흐름을 똑바로 가려보고 더 이상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지 않고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대화협상의 마당에 나서 통일문제를 의논하기를 원한다면 공화국도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하여서는 민족공동의 합의들을 존중하고 일관하게 리행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북과 남이 합의하고 온 세상에 선포한 조국통일3대원칙과 6. 15공동선언, 10. 4선언은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민족공동의 대강이며 그에 대하여 그 누구도 일방적으로 부정하거나 외면할 권리가 없다.

우리 겨레는 이미 6. 15통일시대에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성실히 리행해나갈 때 북남사이에 가로놓였던 장애가 없어지고 삼천리강토에 화해와 협력, 통일기운이 약동한다는것을 실천을 통하여 체험하였다.

정세가 달라지고 정권이 바뀌였다고 하여 북남합의들이 백지화된다면 앞으로 북과 남이 그 어떤 합의를 하여도 소용이 없게 된다.

북과 남은 민족과 세계앞에 서약한 력사적인 합의들을 존중하고 리행함으로써 북과 남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적극 기여해야 할것이다.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하루빨리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는 민족의 힘을 막을자는 이 세상에 없다.

본사기자 유선화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는 얻을것이 없다

국제적인 반공화국압박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미국의 적대행위가 계속되고있다.

미국은 일본, 남조선괴뢰들과 함께 유엔본부에서 비법적인 대조선제재리행과 관련한 그 무슨 통보모임이라는것을 벌려놓았다.

이보다 앞서 미국이 유엔사무총장을 내세워 공화국의 위성발사권리를 부정하는 편지놀음을 벌려놓은데 이어 미국의 조작에 따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는 공화국의 전략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걸고들며 《규탄》이요, 《제재결의》리행이요 하는 공보문을 발표하였다.

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시험발사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항시적인 위협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안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공화국의 자위적조치이다.

그런데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미국의 조종밑에 그 무슨 공보문이라는것을 만들어내고 대조선 《제재결의》리행을 떠드는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닐수 없다.

실지 공화국에 도발과 위협을 가하고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하고있는것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최근에만도 미국은 공화국의 핵시설과 전략적 군사대상물들에 대한 불의의 핵선제타격을 노린 《정밀공습작전》계획이라는것을 공개하였다. 그에 뒤이어 미국은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실동연습을 진행하였다. 상대측에 핵공격을 가할수 있는 《미씨씨피》호 핵동력잠수함이 남조선 부산항에 들어왔고 미군의 《B-52H》전략폭격기편대가 먼거리항법비행 및 전략대상물타격훈련의 미명하에 남조선상공에 날아들어 핵폭탄투하연습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군사적움직임은 미국이 임의의 시각에 공화국에 대한 핵공격을 시도하고있다는것과 아직도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기대를 걸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가도 절대로 실현될수 없는 일이다.

오늘 공화국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강국이다. 공화국의 핵보유는 미국이 오래동안 실시해온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이다. 지난 세기에 있은 조선전쟁시기부터 미국은 공화국을 핵무기로 끊임없이 위협하고있으며 새 세기에 들어와서는 공화국을 핵공격대상명단에 올려놓았다. 목적은 조선반도와 나아가서 세계에 대한 지배주의를 실현하자는것이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조선반도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항시적인 위협이 존재하는속에서 공화국은 나라와 민족의 생존권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미국은 더 발악적으로 나왔다. 《전략적인내정책》을 표방한 오바마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내세워 공화국의 합법적권리인 평화적위성발사에 대해 문제시하면서 사태를 복잡하게 몰아갔고 공화국이 《붕괴》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군사적위협의 도수를 더욱 높이였다. 각종 명목밑에 핵항공모함과 핵전략폭격기를 남조선과 그 주변에 자주 들이밀고 핵타격연습으로 공화국을 위협하였다. 이런 조건에서 공화국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동시에 전진시켜나갈데 대한 병진로선을 법화하였다. 병진로선이야말로 현정세발전의 요구를 가장 과학적으로 밝힌 현명한 로선이 아닐수 없다.

미국의 조선문제전문가들은 부쉬의 강권과 전횡이 조선을 핵보유에로 떠밀었다면 오바마의 정책이 공화국으로 하여금 로케트기술을 향상시키고 핵탄두를 소형화하는데로 나가도록 하였고 그것이 미국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도록 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추구할수록 공화국의 핵억제력은 더욱 강화되고있으며 조선과의 관계에서 선택의 여지는 점점 줄어들고있다.

어제는 미국이 핵으로 공화국을 위협하였지만 오늘은 공화국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미국을 압박하고있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것을 사명으로 하는 유엔도 자기의 책임을 옳바로 수행하는것이 중요하다. 지금 유엔은 자기의 활동원칙을 철저히 지키지 못하고있으며 큰 나라들의 강권과 이중기준행위를 합리화하는데 도용되는 오유를 범하고있다.

특히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자기 기능을 바로 수행하지 못하고 미국의 지배주의야망실현에 꼭두각시로 놀아나고있다.

유엔에서 취급되는 조선반도문제를 놓고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위협으로 산생된 핵문제나 공화국의 평화적위성발사문제 등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특권적지위를 차지하고 이를 악용하는 미국의 비렬하고 음모적인 책동의 결과이다.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대국들의 리익만을 대변하는 유엔 특히 안전보장리사회를 하루빨리 개혁할것을 강력히 요구해나서고있다.

현실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파산되였으며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미국이 얻을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상대에 대하여 잘 알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며 공화국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전룡진

돈이 인권인 사회

날강도세상, 얼마나 험악한 세상(사회)이면 날강도라는 말까지 붙겠는가. 바로 남조선사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남조선출판보도물들에 실렸던 자료들중의 극히 일부를 편집한 이 사진들을 놓고서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생존의 권리란 아무것도 없어 길거리에서 한술 얻어먹고 잠자리마저 펴지 않으면 안되는 사람들, 집아닌 집-판자집, 지하집에서 떨지 않으면 안되는 사람들, 자식키우고 공부시키는데 드는 엄청난 돈사태로 자식낳기마저 포기하는 사람들, 돈벼락에 치료를 받을래야 받을수 없어 고통속에 목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모든것이 돈, 돈, 돈이다. 돈에 사람이 죽어가는 사회, 인권이 돈이고 돈이 인권인 사회.

거기에 괴뢰군에서는 기합과 폭행에 사병들이 죽어가고 사회전반에서는 사소한 자유마저 탄압의 광풍에 사등뼈가 부러진다.

아동수출에서도 세계 제1위, 성매매에서도 세계 제1위… 사람 살 곳이 못되여 잇달아 죽어가니 자살률 또한 세계 제1위인 남조선사회.

가혹한 세상이다. 돈밖에 모르는 강도정치판에 모든것이 날강도행위뿐이다.

제 주제 개주제인 그 주제에 감히 집도 거저 주고 교육도 치료도 돈 한푼 받지 않고 거저해주는 공화국에 대고 그 무슨 《인권》나발까지 불어대니… 강도질에 이골이 난자 《강도야!》하는 짓거리일뿐이다.

본사기자

재침은 곧 망국과 파멸의 길

일본이 부질없는 재침야망을 계속 드러내놓고 있다.

얼마전 일본은 미국, 남조선괴뢰패당과 함께 조선남해에서 련합잠수함훈련이라는것을 광란적으로 벌리였다. 그런가 하면 련합잠수함훈련을 벌리기 전에는 공중 및 해상무력의 현대화, 원거리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새로 개발한 전투기의 비행시험까지 벌려놓았다.

일본의 가증되는 군사적망동은 과연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것은 일본이 해마다 벌려놓는 집단적인 야스구니진쟈참배 하나만 가지고도 그 속심을 잘 알수 있다.

알려진것처럼 올해에도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야스구니진쟈참배에는 일본의 현직관료들은 물론하고 극우익단체인 《모두가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하는 국회의원모임》의 국회의원들이 무리를 지어 참가하였다.

야스구니진쟈로 말하면 악독하고 야만적인 전쟁범죄를 저지른 도죠를 비롯한 특급전범자들의 위패가 보관되여있는것으로 하여 일본의 침략력사의 상징으로, 공화국과 아시아인민들과 세계의 저주의 대상으로 되고있는 곳이다.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하는가 마는가 하는것은 일본의 내정문제가 아니라 침략과 전쟁, 과거죄악을 어떻게 보고 대하는가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예민한 국제적, 정치적문제이다. 그래서 조국인민은 물론 세계가 야스구니진쟈참배를 강력히 반대하고있는것이다.

유모아 동반자

한 탐험가가 산속에서 길을 잃고 이틀동안 헤매다가 한사람을 만났다.

탐험가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총과 무거운짐을 내려놓고 말하였다.

《천만다행이구만! 난 길을 잃고 이틀이나 헤맸소. 이젠 당신을 만났으니 됐소!》

《무엇이 됐단 말이요? 난 이미 열흘째나 길을 잃고 헤매고있는데!》

《?!…》

* * *

일본이 이것을 모를리 없다. 그러나 일본이 뻔히 알면서도 기를 쓰고 야스구니진쟈참배를 강행하는것은 어떻게 하나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는데 있다. 실지 일본은 이것을 실현하는데 장애로 되는 법적, 제도적장치들을 하나하나 제거해버리였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일미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고 안전보장관련법을 채택함으로써 《자위대》가 미국의 비호밑에 세계의 임의의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하고 사실상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수 있게 만들었다. 지금 자위대의 무장장비는 세계군사렬강들과 어깨를 겨루고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제 남은것은 재침의 사회적분위기를 고조시키는것, 이를테면 고위인물들의 정기적인 야스구니진쟈참배로 전범자들을 《애국자》로 둔갑시켜 국민들에게 과거력사에 대한 죄의식이 아니라 군국주의사상을 심어주는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조선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가 마치도 조선민족에게 점거당한 일본땅이라는 외곡된 내용을 담은 교과서를 배우도록 내리먹임으로써 학생들이 령토팽창야망과 복수주의감정을 안고 자라도록 하자는데 있으며 그렇게 무장시킨 일본인들을 해외침략에 나서게 하자는데 그 진의도 가 있다.

지금 일본의 아시아재침은 시간문제이다.

그 첫 대상은 공화국이다. 일본은 지난 세기처럼 공화국을 침략하고 그를 발판으로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일본은 미국과 남조선괴뢰패당의 반공화국적대시책동에 합세하여 공화국의 《핵, 미싸일위협》을 떠들면서 련합잠수함훈련에 광증을 부리고 새 무기개발 등에 열을 올리는것이다.

일본의 그 리면에는 미국을 등에 업고 어부지리를 얻자는 약삭빠른 타산도 있다.

력대로 일본은 큰 나라를 등에 업고 제 리속을 채워왔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저들의 리해관계로부터 재침을 추구하는 일본을 아시아지배전략실현의 돌격대, 전쟁머슴군으로 써먹으려 하고있다. 일본은 그들대로 미국의 침략정책에 발벗고 협력하여 재침의 야망을 이루어보려고 하고있다. 하지만 일본은 오산하고있다. 재미난 골에 범난다는 말이 있다. 재침에 들떠있는 일본당국자들은 그따위 어리석은 행위가 자신들과 국민들의 장래에 돌이킬수 없는 재앙을 빚어낼수 있다는것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된다.

공화국은 그가 누구이든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털끌만큼이라도 건드린다면 추호의 용서도 아량도 인내도 모르고 그 즉시 가차없이 징벌한다는것을 엄숙히 선언하였다.

일본은 재침은 곧 망국과 파멸의 길이라는것을 항상 명심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본사기자

상식

부수도와 소경

강대했던 고구려에는 기본수도외에 부수도(제2수도)로서 북평양과 남평양이 있었다. 612년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전쟁시기 고구려의 기본수도는 평양이였고 북평양은 봉황성(오늘의 중국 료녕성)이였다. 그리고 남평양은 황해남도 신원이였으며 후에는 한성부근으로 옮겨졌다.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에는 5개의 경이 있었는데 그중 기본수도는 상경(발해진)이였고 중경, 동경, 서경, 남경은 부수도였다.

고려에는 기본수도인 개경(개성)외에 서경(평양), 동경(경주), 남경(양주) 등이 있었으며 신라에도 기본수도(오늘의 경주)외에 김해소경, 남원소경, 국원소경(충주), 서원소경(청주), 북원소경(원주) 등 5개의 소경이 있었다.

소경은 작은 수도라는 뜻이다.

* * *

유물

평양종

평양종은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 종각에 걸려있다.

평양종의 유래는 퍽 오래다. 1714년(숙종 40년) 평양의 북성을 쌓고 북장대를 세우게 되면서 대동문 웃쪽다락에 이미 달려있던 종을 옮겨 달았다는 자료가 있다.

지금의 평양종은 1726년 6월부터 9월에 걸쳐 부벽루 서쪽뜰에서 주조완성한것이다.

종의 질량은 2만 2천 5백 2십근 15량(12t 914kg)이고 종의 높이는 3. 1m이며 아구리직경은 1. 6m이다. 종에는 불상, 사천왕상, 구름무늬, 종명 등이 조각되여있다. 걸고리는 쌍룡틀임으로 하였는데 룡머리의 형상이 생동하다.

새로 만든 평양종은 당시 객사이던 대동관앞에 종각을 짓고 걸었다. 지금의 종각은 1827년에 고쳐 지은것이다.

먼 옛날부터 평양성에서는 아침(파루-새벽 4시. 33번 침), 저녁(인경-10시. 28번 침)에 울리는 평양종의 종소리로 모든 성문들이 동시에 여닫기였고 성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변들이 이 종소리로 알려졌다.

평양종은 조선봉건왕조시기 손꼽히는 큰 종의 하나로서 모양이 아름답고 그 소리 또한 장중하여 일찍부터 평양의 명물로 일러왔다.

평양종은 우리 나라 종의 특징과 당시의 주조기술의 높은 발전모습을 잘 보여주는 문화유물의 하나이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34(1945)년 12월 31일 대동문옆의 평양종을 지금도 칠수 있는가를 알아보시고 이 종은 우리 선조들이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는데 리용했던 중요한 방위신호수단이였다고 하시면서 귀중한 문화유산인 이 종도 일제가 우리 나라를 강점한 후 적들에게 눌리워 자기 소리를 내지 못하고 감금되여있었으나 이제는 해방이 되였으니 응당 제 소리를 내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그날밤 12시,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을 담은 평양종의 종소리가 온 강산에 울려퍼졌다. 장중하면서도 은은한 평양종소리는 해방된 조국에서 첫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인민의 감격을 더욱 새롭게 하여주었다.

오늘도 평양종은 옛 모습그대로 보존되여 인민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을 전하고있다.

* * *

해금강　　본사기자 홍훈

천하절승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바다에 옮겨놓은것 같은 해금강.

흰 물결이 출렁이는 바다, 바다물에 씻기고 깎이여서 마치 사람이 만들어놓은듯 한 기묘한 바위절벽들은 해금강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구어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682150
http://www.naenara.com.kp(조문, 로문)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